“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9호 HYUNBULNEWS.COM 2025년 12월 17일(음력 10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조계종은 12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있던 마애여래삼존불을 덕숭총림 수덕사로 이운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지난 2004년 2월 17일 종단 안정과 화합을 발원한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원력으로 조성된 마애여래삼존불은 국보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을 재현한 것으로 20여 년간 기념관을 찾는 사부대중의 예경 대상이었다. 사진은 이운 전 마애여래삼존불에 예경을 올리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진 제공=조계종

“세계유산 가치 훼손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조계종 12월 8일 입장문 발표
“인류 보호 세계 유산” 강조
12월 5일, 환경위 현장 점검
환경 · 경관 전면 재검토 필요
“통도사와 함께 끝까지 대응”

임은호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2월 5~6일 통도사, 표충사에서 현장점검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신불산 케이블카 개발의 부당성을 확인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진각 스님, 이하 환경위)가 울산 울주군 신불산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건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환경위은 12월 8일 ‘신불산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건설을 단호히 반대한다’ 제하의 입장문에서 “신불산과 영축산, 그리고 통도사는 한국 불교의 심장부이자 인류가 보호해야 할 세계적 자연·문화유산”이라며 “케이블카 사업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는 횡령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켜야 마땅한 세계유산권역을 온전히 보전하는 일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이 계획이 불가역적으로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불산 일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건립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울주군은 2018년 자체 검토 과정에서 기존 노선의 부적합성을 인정했으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이후 노선을 변경해 사업을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환경위는 통도사와 함께 12월 5일 건설 예정지를 방문,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환경위원들을 △변경 노선의 설치 위치 △식생 훼손 가능 지역 △탑승·하부 정거장 조성 예정지 등을 살펴보며 케이블카 설치가 신불산·영축산·통도사에 미칠 영향을 확인했다.

특히 자연경관의 핵심 공간인 공용능선 위로 철탑과 와이어로프가 설치될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핵심 근거인 ‘산사와 자연의 조화’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고산 생태계 훼손 문제도 지적됐다. 상부정거장 조성을 위한 능선부 절취와 부지 조성은 산림 훼손을 수반하며, 이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파괴와 이동 통로 단절로 이어져 생태축 파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관광 추세 변화도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세계 대부분의 산악 보호구역이 인공시설 기반 관광을 줄이고 생태보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막대한 유지비 대비 효과가 낮은 케이블카 중심 개발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영축산 통도사 일대를 ‘불교 생태구역’으로 지정해 보전 중심의 장기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향후 종단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으고, 행정절차 대응과 보호지역 제도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위는 △관계 행정기관 대응 △환경영향평가 검증 △법률·제도 개선 활동 △시민사회 및 종교계 연대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케이블카 건설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념관 마애불 이운…“전통+현대 공간 재탄생”

12월 10일, 이운 의식 거행
2004년부터 20년간 예경
‘LED 미디어 파사드’ 설치
12월 중 수덕사 이운 완료

2004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조성돼 예경의 상징으로 모셔졌던 마애여래삼존불이 수덕사로 이운된다. 해당 위치에는 대형 ‘LED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0일 기념관 입구 앞마당에서 마애여래삼존불 이운 의식을 거행했다. 의식은 직할교구 사무처장 진허 스님과 승가교육위원 지성 스님이 법주를 맡아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이운 취지 고(告), 석가모니불 정근, 축원, 사홍서원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임자 스님들과 종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께 마지막 예경을 올렸다.

마애여래삼존불은 국보인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을 재현한 것으로, 2004년 2월 17일 종단 안정과 화합을 발원한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원력으로 조성됐다. 이후 20여 년간 기념관을 찾는 사부대중의 예경 대상이자 자비의 상징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올해 6월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전면 리모델링이 추진되면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재정비됨에 따라 이운이 결정됐다. 마애여래삼존불이 모셔졌던 공간에는 건물 외벽을 스크린처럼 활용하는 ‘LED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행사 성격에 따라 전국 사찰의 불·보살 이미지와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영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법·포교의 새로운 소통 창구를 열고, 다채로운 불교의 진면목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마애여래삼존불에 삼배를 올린 진우 스님은 “청사 화재 복구를 계기로 마애여래삼존불을 다시 본사인 수덕사로 이운하게 됐다”며 “20여 년간 예경의 상징으로 함께해 온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에 발맞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중에 있다. 불교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변화가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애여래삼존불 이운에 대한 사부대중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획국장 철인 스님은 ‘이운 취지의 고’에서 “법장 스님의 원력으로 모셔진 마애여래삼존불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이 공간에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중생을 평안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비와 지혜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재 복구 과정에서 기념관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장엄될 것”이라며 “이 자리를 자애로운 미소와 위없는 당당함으로 채워준 마애불을 깊은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수덕사로 이운함을 불법승 삼보 전에 고한다”고 전했다.

이운 의식 이후 참석자들은 마애여래삼존불을 차례로 참배했다. 조계종은 이날 의식을 시작으로 12월 중 수덕사와 협의를 거쳐 마애여래삼존불 이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한중일불교교류회의, 내년 10월 한국서 개최

종단협, 12월 11일 제3차 이사회
내년도 예산안·사업계획 등 공유
신년하례법회, 1월 27일 조계사서
회원 의무 미이행 '일승종'은 제명
한일불교 이사장에 상진 스님 연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11일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2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9(2025)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한중일 불교계가 세계 평화와 불교 발전을 발원하며 1995년부터 이어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제26차 대회가 내년 10월 한국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1일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2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9(202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대회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회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불교계의 시스템과 협력구조가 필요하다. 종단 간 협력과 공동의 실천이 확고해질 때 한국불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신뢰받는 종교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26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의 세부 일정과 주제 등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삼국 예비회의에서 결정된다. 예비회의에는 종단협 상임이사로 구성된 교류위원단이 참석한다.

부속사업으로 중국수행단의 한국불교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이 사업은 한중 인적교류의 내실을 다지는 자리로, 중국불교협회 소속 스님 40여 명이 방한해 한국 사찰의 전통 수행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문화 현장을 탐방한다. 이를 통해 양국 불교계의 우호를 증진하고 수행·문화 교류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사회에서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9억 7812만원으로 편성하고 주요 사업 등도 확정했다. 종단협 신년하례법회는 1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되며, 종단협 소속 스님들과 사회 각 분야 불교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불교 발전과 사회 안녕을 기원한다.

종단간 화합 강화와 종교계 교류 증진을 위한 제12회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는 내년 6월 호주로 예정됐다. 일본불교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봉환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종단협은 이사종단인 대한불교일승종에 대한 제명도 의결했다. 일승종은 올해 3월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회비 납부, 연합법회 참가, 총회·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등 회원 종단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한 차례 강등된 바 있다.

이에 종단협은 12월 이사회 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끝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 정관 제2장 8조에 따른 회원 의무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관 전반의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조항을 수정하는 정관 개정 작업도 마무리했다. 또 각 종단 인사 변화에 따라 상임이사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보광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원상정사, 태고종 문화부장 월타 스님으로 변경됐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가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변경 및 입회·탈퇴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불기2570년도 사업계획 심의의 건 △불기2570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 건 등을 다뤘다. 현재 임기가 2026년 2월 만료되는 이사장직은 상진 스님이 연임하며, 감사에는 보문종 총무부장 자문 스님과 방정자 한일불교 여성부 총무가 선출됐다. 이사장과 감사 임기는 2년이다.

범어사, 청사 복구 등에 1억원 쾌척


범어사가 기념관 복구·화쟁위 발전에 각 5000만원씩을 전달했다.



주석 스님(오른쪽)이 중앙종무기관 컴퓨터 150대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지원했다.

12월 11일, 진우 스님에
주석 스님도 12월 9일
청사 컴퓨터 150대 지원

종단의 원활한 운영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범어사 스님들이 정성을 보탰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오 스님 등은 12월 11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에 5000만원, 화쟁위원회 발전기금에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 승가대학장 도산 스님, 종회의원 석산·도림·허허 스님 등 범어사 대중 스님들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범어사 덕분에 더 좋은 환경에서 종무에 집중하고, 종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범어사 방장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에 정여 스님은 "정만 스님이 화쟁위원장을 맡아 화쟁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 화합을 이끌어가길 바란다"며 "화쟁위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고자 기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오 스님도 "청사 복구가 잘 마무리되는 중이라 다행이다. 범어사에서도 종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도 12월 9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컴퓨터 150대를 전달했다.

주석 스님은 "청사 복구에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지 고민하다가, 공사가 마무리돼 곧 입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컴퓨터 지원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부산 지역 포교에도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텐데, 총무원 청사 복구까지 도움을 주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내영 기자 · 송정인 수습기자

태고종 제24차 법계고시 품서식 봉행

12월 9일, 서울 법륜사서
종사, 종덕 등 81명 품서
바른 신행·청정 계행 서원


12월 9일 열린 태고종 법계고시 품서식에서 종사 법계를 받은 스님들이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2월 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불이성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제24차 법계고시 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계 품서식에서는 △진화 스님(총무원 규정부장) 등 16명이 종사 △법진 스님(총무원 홍보부장) 등 17명이 종덕 △정무 스님 등 21명이 대덕 △진산 스님 등 22명이 중덕 △혜수 스님 등 5명이 선덕 법계를 품서 받았다.

법계 품서자 총인원은 81명으로 이들은 지난 10월 22일 진행된 법계고시를 통과해 이날 법계증을 받았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법계의 품서는 바른 신행과 청정한 계행을 통해 종풍을 선양하고 승가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서원을 새롭게 하는 법석"이라며 "앞으로도 바른 신행과 승가의 위의를 지키며 종단이 정법의 길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원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고시위원장 휴완 스님은 인사말에서 "온 산하대지에 비가 내리면 척박한 땅은 금방 메말라 가지만 밭을 잘 일군 비옥한 터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서 "명품 땅을 일구듯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굳건히 자라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재홍 스님은 축사를 통해 "종단의 법계 질서가 원칙을 지키며 안정화 돼가고 있다. 향후 교육을 통한 종단의 위계가 필요하다"며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하루가 다르게 종단의 위상이 올라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능해 스님도 "전법 포교를 열심히 정진하는 것도 스스로의 수행 근기를 높이는 중요한 방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법계를 품서한 모든 구성원들이 전법 포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 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만나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경쟁 위주의 현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인성과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교육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괴롭다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며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방안을 깊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교육정책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교육부는 당면한 교육 현안 해결은 물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호흡을 잘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부처님 법 전하는 '전법총서' 시리즈



전법총서 NO.1
부처님의 생애, 붓다 · The Buddha
위대한 붓다의 삶과 가르침 그 속으로!
윤재웅·박기련 | 128×187 | 32,000원



전법총서 NO.2
불교성전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이 한 권에!
불교성전편찬위원회 | 128×187 | 36,000원



전법총서 NO.3
불교사전
불교공부의 든든한 길라잡이!
동국대 건학위원회 불교사전편찬위원회
128×187 | 89,000원

'전법총서'란?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이 기획·출간하고 있는 '전법총서'는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불서(佛書) 시리즈이다. 각 총서의 표지는 불기(佛旗)의 5색을 상징하며, 청·황·주황색에 이어 백·적색의 총서로 불교학개론 등이 출간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전화 02-2264-4714 팩스 02-2268-7851 이메일 abook@jeongjincorp.com

자승 대종사 부도탑 제막…“전법은 시대 사명”

봉은사, 12월 6일 법왕루서 2주기 다례재

400여 명 동참해 유지 계승 다짐
영상법문 시청 · 헌화 · 헌다로 추모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맡아 한국불교 중흥에 헌신하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운동으로 포교·전법 활성화를 이끌었던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적 2주기를 맞아 스님의 뜻을 기리고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2월 6일 경내 법왕루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원적 2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추모는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가야만 할 새 길을 여는 다짐의 자리다. 남아 있는 후학들은 더 치열하게 수행하고 더욱 담대하게 쇄신해야 하며 널리 전법해야 한다”며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대종사의) 유훈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동시에 조계종도의 존재 의미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다 함께 실천 의지를 다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즉석에서 게송을 읊으며 자승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자승 대종사는 함께한 20년의 매 순간 진실했고, 종단 발전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스님의 뜻을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례재를 준비한 봉은사와 해봉문도회도 참석 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2주기에 (자승 대종사의) 부도탑과 비를 함께 모시려 했는데, 부도탑만 먼저 모시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해봉문도회 대표의장 탄원 스님은 “자승 대종사가 남긴 화합과 믿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유지를 실현하는 데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봉은사는 12월 6일 ‘해봉당 자승 대종사 원적 2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를 마친 참석대중은 자승 대종사의 부도가 모셔진 부도전으로 이동해 제막식을 거행했다.

다례재를 마친 참석대중은 부도전으로 이동해 제막식을 거행했다. 부도탑 조성은 대종사의 49재 회향 이후인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1주기 다례재에서 부도탑과 부도비 조성불사의 시작을 사부대중에게 알렸고, 올해 1월부터 모연이 추진됐다. 지난 11월까지 모연을 마무리한 뒤 12월 4일에 복장 봉안이 진행됐으며, 이날 2주기 다례재에 맞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증명으로 제막식을 열게 됐다.

부도탑은 부도전 좌측에 모셔졌으며, 가로 1m 95cm, 높이 4m 18cm 규모로 지대·하대·중대·상대·탑신·옥개·보륜·보개·보주석으로 구성됐다. 이 불사에는 130세대와 단체, 39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정성을 더했다.

봉은사는 부도탑 제막에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부도비를 조성해 봉안할 계획이다.

11년간 남북 담론 이끈 민추본 ‘월례강좌’ 마무리

2014년부터 정세 분석 공개강좌
12월 9일, 제91차 강의로 종료

지난 11년간 불교계에서 남북정세를 다루는 대표적 공개강좌로 자리해 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 월례강좌가 12월 9일 제91차 강의를 끝으로 대정정을 마무리했다.

남북관계 흐름에 맞춰 이어지던 강좌는 불교계의 평화·통일 담론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 때문에 강좌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민추본은 최근 남북경색 장기화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 기획 사업으로 방향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진행된 마지막 강좌에서 참석자들은 강좌 종료 소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마지막 월례강좌가 진행된 12월 9일, 20여 명의 회원들이 그간의 소회를 나누고 있다.

월례강좌 마지막 강연자로 마이크를 잡은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객원교수는 “스스로에게도 성찰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서 “무엇보다 11년간 이 자리를 지켜 온 민추본의 꾸준함이 더 큰 가치”라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 회원들 역시 “남북관계 관련 정보를 균형 있게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육장이었다”, “단순한 정세 강의가 아니라 통일 감수성을 키우는 배움의 장이었다”면서 ‘종강’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종료된 민추본 월례강좌는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내걸던 시기 첫발을 내디뎠다. 첫 강좌는 정창현 국민대 교수의 ‘남의 통일 대박, 북의 중대제안’으로 장성택 숙청 이후의 북한 내부 변화에서부터 그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이르기까지 남북정세 전반을 짚은 내용이었다.

강좌 시작 초반, 민추본에서 진행하는 불교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면서 월례강좌는 학습 공동체의 틀을 마련했다. 강좌는 북한 정치·사회·문화, 남북교류, 동북아 안보 정세, 민간의 평화 활동, 불교계의 통일 기여 방안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불교계에서 드물게 ‘정세 분석’이라는 전문 분야를 정기적으로 대중적으로 풀어낸 자리였다.

불교지도자과정과 더불어 북중 접경지역과 DMZ 일대 순례, 제주 4.3항쟁 평화 순례 등 민추본의 여러 교육·현장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불자들의 참여 폭을 넓힌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강좌를 듣고 순례에 참여하며 현장 체험과 공부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불교계에서 통일 문제를 매월 고민하는 장이 지속된 것은 사실 더 큰 성과다.

월례강좌는 종료되지만 민추본의 교육과 연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월례강좌를 대체해 △정세 변화 시 긴급 좌담·토론회 △지역 중심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연수교육 강화 △대외 협력 포럼 확대 등 새로운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미애 민추본 행정관은 “월례강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1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더 실질적이고 민감한 정세 대응력을 키우고 회원도 유치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기자상 시상식…대상엔 현대불교신문



한국불교기자협회는 12월 8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5 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이 대상인 선원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2월 8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
최우수상 윤호섭 · 유화석 기자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의 ‘AI&미래불교’가 2025 한국불교기자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보배, 이하 불기협)는 12월 8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5 불교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에게 대상인 선원빈상을 수여했다.

심사위원장인 허남결 동국대 명예교수는 심사평에서 ‘AI&미래불교’에 대해 “AI시대에 불교가 헤쳐나가야 할 다양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뤘다”며 “향후 우리 불교계가 전법과 포교 전략을 세우는 데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AI&미래불교’는 AI시대의 흐름에 맞춰 불교적 가치와 시대적 과제를 폭넓게 조명한 기획이다. 불교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웃 종교의 대응 사례를 분석했으며, AI를 활용해 손쉽게 양산되는 상업적·비불교적 콘텐츠의 범람 문제도 짚어 냈다.

본지 신중일 부국장은 “AI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올바르게 불교와 접목·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AI시대에 불교가 헤쳐 나가야 할 다양한 문제점을 다루고 향후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불교 언론인은 팔정도에 따라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며 좋은 기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기획·해설부문 최우수상은 윤호섭 BTN불교TV 기자가, 취재·보도부문 최우수상은 불교계 종교교과서 부재와 편찬 필요성을 지적한 유화석 법보신문 기자가 수상했다. 불기협 회원 자녀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인 혜총장학금은 조용주 금강신문 기자 가족이 선정됐다.

송정인 수습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동안거 포살법회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불기 2569년 동안거 정진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행 ·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조계종 직할교구 스님들이 포살법회로 그간의 수행을 점검하고 계율 준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첫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250여 직할교구 스님들은 장궤합장을 한 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며 초발심을 되새겼다. 글=김내영 기자 · 사진=송정인 수습기자



“영규·조헌 합사 칠백의총, ‘금산의총’으로”

조계종연구소 ‘기허 영규’ 조명 세미나 개최

김상영 명예교수 대표 발제
“법전 써서 당상관 임명을”
영규 대사 공적, 유생도 인정
후대 고승들 ‘眞僧’이라 칭송
두 선열 충정 바로 선양 위해
금산칠백의총 명칭 변경돼야



조계종연구소는 12월 11일 ‘기허 영규의 의승 활동과 그 공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상영 명예교수가 대표 발제하는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호국·애민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나 왜군과 맞섰던 기허 영규 대사와 의승, 의병장 조헌과 의병들이 금산칠백의총에 합사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로 기리기 위해서라도 의총의 명칭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는 12월 11일 서울 센트로폴리스 컨퍼런스 세미나룸에서 ‘기허 영규의 의승 활동과 그 공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표 발제자로 나선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영규 대사의 생애와 공적을 문헌과 비문 등 기록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조망했다.

당시 함께 활약한 휴정, 유정, 처영 스님과 달리 영규 대사는 스님으로서의 이력이나 문장이 없어 ‘사문 영규’의 삶은 추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19세기 고승인 응운 공여 스님이 영규 대사를 ‘진승(眞僧)’이라 표현하며 그 충정을 기리고 있음에 김 명예교수는 주목했다. 그는 “입적 후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규는 단지 의승장으로서가 아니라 후대 승려들에게 참다운 승려의 위의를 갖춘 인물로 널리 존숭되고 있었다”고 봤다.

전쟁 초반 전사함으로서 다른 의승장들과 달리 빼어난 전과를 남기는 못했지만, 조선 후기 유학자들에게 존숭돼 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 명예교수에 따르면 금산전투 이후 9월 12일의 〈선조신록〉 기사에 따르면 선조는 영규 대사의 당상직 제수를 언급했고, 이에 윤두수가 “승려를 당상관에 제수한 것은 개벽 이래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의당 특이한 법전을 써서라도 임명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명예교수는 의총의 명칭 변경 등 최근 불거진 불교계와 문중 간 갈등을 언급하며 “영규 대상와 조헌의 관계는 단순히 전우 이상의 관계였을 것이다. 두 위인의 충정을 감안할 때 지금의 논쟁과 갈등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한글로 번역된 〈인봉전승업선생유고〉에서 ‘700의병의 의골과 300승병의 의골을 거뒀다’는 기록이 확인됐음을 상기한 김 명예교수는 “금산칠백의총은 금산전부에서 희생된 의병과 의승을 모두 합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래 전부터 ‘칠백의총’이라는 이름을 써 왔어도 그 명칭이 올바른 역사상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개칭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이곳에 담겨 있는 숭고한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추모·선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 용례가 많이 발견되는 ‘금산의총’이 대안 명칭으로 적합하다”면서도 “현재 명칭이 지역사회와 문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당장 명칭 변경보다는 영규 대사와 의승에 대한 예우를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늘 청춘의 마음으로, 99세까지 88하게!”

조계종복지재단, 12월 9일 칠순 · 팔순 봉사자들 격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2월 10일 조계종자원봉사단 우수근속자원봉사자 시상식 및 9988 백수연을 개최했다. 사진은 칠순·팔순을 맞은 자원봉사자들을 축하하는 모습.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이 12월 10일 조계종자원봉사단 우수근속자원봉사자 시상식 및 9988 백수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 창립 30주년과 자원봉사단 출범 3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보살행을 실천해 온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미자 단원(늘사랑회 팀장, 발경락마사지 전문봉사)의 표창 전달식을 시작으로 올해 칠순과 팔순을 맞은 단원 27명(칠순 22명, 팔순 5명)에게 표창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 근속 연수에 따라 선정된 우수봉사자 30명(10년 19명, 20년 11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하고 자원봉사 활동 성과 공유와 격려시간을 가졌다.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 “여러분의 발걸음은 부처님 자비를 일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낸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살행을 이어가 주시길 기대했다.

재단 본부장 동표 스님은 “묵묵히 자비나눔을 실천해 온 봉사자들의 헌신은 재단과 봉사단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돼 왔다”며 “이번 시상은 개인의 봉사 공로를 넘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함께해 온 공동의 걸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년 근속 우수봉사자이자 올해 칠순을 맞이한 사용배 집수리봉사팀 팀장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시작한 일이 자원봉사였고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보살행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계종자원봉사단은 1995년 재단 창립과 동시에 창단했다. 현재까지 누적 3600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 강의수 14대 단장 임명

진우 스님, 12월 9일 임명장 수여 2년간 포교 매진 현 임원진 표창도



조계종은 12월 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포교사단 제14대 단장 및 임원 임명식’을 봉행했다. 임명식 후 단체사진 모습.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12월 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포교사단 제14대 단장 및 임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0월 선거에서 당선된 제14대 단장 및 임원들과 현재 소임을 보고 있는 제13대 임원들이 함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포교사단 총재인 진우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포교사들이 지역 교구본사를 비롯한 사찰 주지 스님들과 여법하게 소통해 포교사 간 화합을 두텁게 하고 지역불교의 활기를 북돋우는 윤활유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스님은 종단이 직면한 출가자 감소 현실을 언급하며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든든한 수행·포교 인력이 돼 스님과 신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연결망이 돼 주길 바란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2026년 1월부터 2년간 임기를 시작하게 될 강의수 제14대 포교사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의수 단장은 10월 1일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어 14대 임원으로 함께할 신학균·안수빈 감사, 이미숙·박종안·정연숙·박은호·하용수 부단장에게도 임명장을 전달했다.

13개 지역단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유재 서울지역단장을 비롯해 박종안 부산단장, 최원영 대구단장, 정원희 대전세종충남단장, 정환근 광주전남단장, 강일수 전북단장, 김동아 강원단장, 한대수 충북단장, 정재호 인천경기단장, 이원환 경남단장, 김미숙 울산단장, 강윤호 제주단장, 박돈우 경북단장이 각각 임명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13대 전법포교 소임에 최선을 다한 임원들에 대한 전법상도 수여됐다. 김영석 13대 단장을 비롯해 김명동 부단장, 강민구 서울지역단장, 송재린 부산지역단장이 표창을 받았다. 경북지역단도 고운사 산불 화재 지원 등에서 활발히 활동한 공로로 전법상을 받았다.

김영석 제12·13대 포교사단장은 “이제 포교사로서 포교사단 사업비전 실현과 종단 종세 확장에 늘 힘쓰겠다”며 14대 집행부 출범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포교사들은 강의수 제14대 포교사단장의 발원문 낭독을 통해 새해에도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들은 “4800여 포교사들은 환희와 감동의 포교를 펼쳐나가며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함께 노력 정진 하겠다”고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직강화특별委 구성

12월 9일, 운영위원회 개최 조직강화 방안 모색 힘쓰기로


중앙신도회는 12월 9일 ‘중앙신도회 2025년 4/4분기 중앙운영위원회 및 송년만찬’을 개최하고 올해 사업들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2025년 마지막 중앙운영위원회 개최하고 올 한 해 다양한 사업들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신도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계종 포교부와 함께 조직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앙신도회는 12월 9일 서울 CCMM 빌딩 컨벤션홀에서 ‘중앙신도회 2025년 4/4분기 중앙운영위원회 및 송년만찬’을 개최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된 금번 회의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해 선임직 부회장, 자문위원, 전국 각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대표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안건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 보고’,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결과보고’가 있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결과보고에 이어 정원주 회장은 7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인 김학규 직할교구신도회장을 포함한 준비위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불자 자선 파크골프’를 주관한 김성태 제8교구본사 직지사 신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원주 회장은 “올해 창립 70주년 사업이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준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제28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된 만큼 다 함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중앙신도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용식 사무총장은 “새해를 맞아 우리 조직을 되돌아보며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교구신도회와 신도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교부와 함께 조직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전했다.

중앙신도회는 12월 26~27일 해남 미황사에서 임원 템플스테이를 연다. 또 내년 3월 중국에서 성지순례를 가질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중림동 400년 약주 전통 잇는 ‘약현’ 개소

서울중림복지관서 개소식 인문 교육 · 어르신 일자리도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 10일 개소한 전통주 문화 플랫폼 ‘약현’ 부스에서 어르신이 ‘약현’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400년 약주(藥酒)의 전통이 깃든 서울 중구 중림동에 지역 역사와 문화를 잇는 전통주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해경)은 12월 10일 관내에서 전통주 문화 플랫폼 ‘약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약현’이 지역 정체성을 담은 로컬 브랜딩 공간으로서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전통문화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약현’은 전통 약주의 유래지인 중림동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조성된 전통주 문화 플랫폼이자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장이다. 앞으로 ‘약현’은 전통주를 맛보고 배우는 공간을 넘어 어르신의 삶과 지역의 역사를 잇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약주에 대한 역사성을 가진 중림동의 이야기가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다시 살아나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주 역사 인문 교육, 전통주 빚기 체험, 전통주 시음회, 전통주 샵 등 어르신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경 관장은 “중림동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약현’을 지역 정체성을 담은 로컬 브랜딩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고령세대의 경험과 경론을 활용한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단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2-362-3348 임은호 기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송년의 밤’ 성료

12월 5일, 메이필드호텔서 자랑스런 동문상 범해 스님



사진 제공=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성행 스님)가 12월 5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불기 2569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사진·불국사 부주지)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는 동문 구성원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수행과 포교, 종무행정 현장에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이 중앙승가대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을 통한 격려사에서 “탈종교와 저출산, 고령화, AI 발전 등 산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한국불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앙승가대가 추진 중인 안암동 개운학사 선명상센터 건립불사는 학교 발전과 불교중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동문회는 학교 발전과 동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전 교육원장 범해 스님(약사사 주지)에게 ‘자랑스런 동문상’을,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에게는 ‘공로상’을,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 철우 스님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각계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원력상에는 신광사 주지 종문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에는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정인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현 스님이 각각 수상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환경연대, 22기 숲해설가 수강생 모집

내년 2월 7일~8월 23일 수업 산림 교육 · 숲 명상 등 진행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숲해설가 전문과정 제2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제22기 숲해설가 전문과정은 내년 2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전법회관 강의실과 남산·북한산·청계산·왕숙천 등 야외실습장이다. 프로그램은 △산림 교육 △산림 생태 △산림 휴양 및 문화 △자연놀이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숲명상 △안전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이론과 현장 수업을 170시간 출석하고(필수 36시간 포함), 이론평가와 시연평가를 70점 이상 받으면 산림청 인증 숲 해설가 전문과정 이수를 인정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수료식은 내년 10월 17일이다.

숲해설가 전문과정은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숲의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삶의 통찰력을 깨닫고 자연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며 모집인원은 40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환경연대 홈페이지(www.budaeco.org) 참조. 02-720-1654 송정인 수습기자



조계종은 12월 11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37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여 스님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포교대상 영광의 주인공들(앞줄 왼쪽부터 원력상 박옥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사무팀장·경남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지도법사 법광 스님, 대상 정여 스님, 공로상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원력상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 사무국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 정여 대종사 "수행 포교 진력하겠다"

조계종, 12월 11일 시상식 개최
포교 현장 공로자들 시상·격려
진우 스님 "사회 밝히는 등불"
정여·법해 스님 포교기금 쾌척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정여 스님은 포교대상 상금 1000만원을 포교진흥기금으로 쾌척했다.



법해 스님도 2000만원을 포교진흥기금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불교 포교 현장 공로자들을 치하하는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7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여 스님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은 일선의 포교현장에서 이룩한 전법과 포교의 결실을 종단적 관심과 격려로 함께 나누며 그 뜻을 굳건히 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포교대상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원로의원)가 수상했다. 정여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포교 및 인재양성, 사회복지 및 나눔 실천, 종교 화합·평화운동, 지역사회 발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그 공을 인정받았다.

정여 스님은 "출가자 본분에 따라 수행과 포교에 진력했고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신도 포교를 꾸준히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종단에서 더 많이 부처님 말씀 전하고 포교 더 하라는 뜻에서 준 상으로 생각하며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여 스님은 포교대상 상금 1000만원에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포교진흥기금으로 쾌척했다.

공로상은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과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이 받았다. 법해 스님은 "앞으로 진관사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상이라 생각하고 더욱 정진하겠다"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정성을 모아 부처님 법이 세상 속으로 가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해 스님도 이날 2000만원을 포교진흥기금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원력상은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지도법사 법광 스님과 박옥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사무팀장,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 사무국장에게 돌아갔다. 법광 스님은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성 함양 교육에 헌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의 포교대상 주인공에게 주어진 트로피는 조계종 문장인 삼보륜을 품고 있는 연꽃을 형상화했다. 상단의 삼보륜을 감싸는 4장의 연꽃잎은 사성제를 의미하고 그 아래를 4장의 연꽃잎으로 감싸 팔정도를 표현했다. 또 그 아래 4장의 연꽃잎까지 모두 합하면 십이연기를 상징화해 부처님의 근본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겼다.

시상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 법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온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한 명 한 명의 공덕은 어느 한 분야에 머물지 않고 한국불교 전체의 기둥을 이루며 우리 사회와 자비와 평화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면서 "갈등과 분열, 불안과 상실이 깊어지는 시대적 고비를 맞이한 이때, 수상자들이 보여준 자비와 상호존중, 연대와 공감의 힘은 우리 사회를 다시 밝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크나큰 등불"이라고 말했다.

수상자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법을 품고 살아온 포교현장의 주역"이라고 표현한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실천으로 열어온 이들의 원력은 한국불교 중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공동체 치유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늘의 공덕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부처님 전도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밝의 모든 순간을 전법의 길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시상식을 주최한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인사말에서 수상자들의 원력과 자비 실천이 포교 현장의 불자들에게 길이 남을 귀감이 되길 기원했다. 스님은 "수상자들의 공적을 널리 드러내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부대중 모두가 전법 포교에 매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수상자의 일상과 사회 각 분야에 뿌려놓은 선근공덕은 많은 이들을 안락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축사에서 "중단없는 정진은 개인 공덕을 넘어 종단의 기틀을 단단히 세우는 힘이며 나아가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이루는 귀중한 실천"이라며 "현장에서 밝힌 작은 등불 하나하나는 마침내 이 사회를 비추는 큰 광명이 돼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널리 퍼지는 길을 만들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포교대상은 활발한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1987년 제정됐다. 1988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올해 37회를 맞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각 계층, 직장직능, 사회문화 등 다양한 포교 현장에서 대중과 함께 하며 불교발전에 헌신한 개인 417명, 사찰 및 단체 20곳, 총 437명에게 수여됐다.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종정상) 정여 대종사



정여 대종사는 부산 불교계의 복지와 나눔 실천 선구자로 꼽힌다. 부산 최초로 불교계 사회복지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법인을 설립, 개금사회복지관장 소임을 시작으로 부산 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또 네팔·캄보디아 등 국제 구호 활동을 통해 자비 실천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및 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섰다. 어린이법회 활성화와 지도자 양성에 앞장서며 대한불교교사대학 설립과 어린이 포교단체였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사단법인 동련으로 법인화해 체계적 포교 기반을 마련했다. 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청소년 문화·봉사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했고 장학사업과 대학 불교동아리 후원으로 미래불자 육성도 힘썼다.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범어사 주지 및 부산불교연합회장을 맡아 지역 불교계 통합과 발전에 기여했다. 또 종단 법계위원을 역임하고 현 원로의원으로서 종단 제도 강화와 미래 비전 제시에 힘쓴 점, 종교간 연대 활동을 통해 공동선 실천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총무원장상) 법해 스님



법해 스님은 대통령 및 정부 주요 인사 초청 행사를 다수 봉행하며 불교의 국가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여성불자대회 샤카디타, 정전 70주년 수륙재 등 국제·사회적 의미를 담은 대형 불교행사를 주관했다. 외신기자단, 대사부인단, 태평양도서국 영부인 대상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포교 기반을 확장했다.

포교활동도 다각적으로 펼쳤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관사 도량 정비 불사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어린이·청소년·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미래 불자 양성에 힘썼다.

대사회적으로는 '진관사 태극기'의 항일정신을 재조명했으며 수륙재를 통해 사회적 치유 콘텐츠 개발 등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시켰다. 또 산사음악회, 웰니스 대축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불교의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바쁜 일상 속 잃어버린 쉼표,
진관사 단기출가학교 '한 걸음'

■ 수행기간 : 2026년 1월 20일(화)~1월 26일(월)/ 6박 7일
■ 접수기간 : 2025년 12월 7일(일)~12월 30일(화)
■ 모집대상 : 출가체험 희망자,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대중생활이 가능한 자, 불교에 관심이 있는 17세~59세 성인여성
■ 모집인원 : 15명
■ 신청방법 : 진관사 단기출가학교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jinkwansa.org/html
E-mail접수 : jintem359@naver.com
■ 전화문의 : 02-359-8410, 010-2081-8410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2026년 학술세미나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V

'검증할 자료는 있었고, 검증은 하지 않았다'

본 연구원은 근대 제주불교 역사와 1918 법정사 항일운동 역사 왜곡 현황을 고찰하고, 사실의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었을 때 비로소 선인(先人)의 묻힌 궤적도 드러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6년 1월 10일 (토) 13시 ~ 17시
장소 :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제주시 오복4길 25)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자관 스님,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취임

12월 6일, 부산 자비암서 취임법회
'정법 안립·교구 화합' 집행부 출범
원로위원 추대 및 발전 기금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태고종 제21대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 스님이 취임 일성으로 교구 행정 안정과 화합을 선언했다.

12월 6일 부산 자비암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부산교구가 정법 안립의 중심 도량으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관 스님은 "교구종무원장 소임을 개인적 영예가 아닌 교구 사부대중이 부여한 책임의 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부산 지역 태고종 스님들과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교구를 일으켜 왔듯, 이제는 정성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종무원의 문을 활짝 열고, 투명하고 청정한 행정을 통해 모두가 신뢰하는 교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교구는 이날 수행과 포교, 교구 발전에 헌신해 온 도광·고담·지만·삼광 스님을 원로위원으로 공식 추대했다. 집행부 실무진으로는 총무국장 도명 스님, 교무국장 혜광 스님, 재무국장 지운 스님, 문화국장 보해 스님을 임명했다.

이날 자관 스님은 총무원에 종단 발전기금을 1000만원을 전달하며 교육·포교·승가 사업 활성화를 지원했다. 또한 종단 행사와 교구 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송미화 자비암 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취임식에서는 종단과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지며 자관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자관 스님이 그간 부산교구 발전과 종무행정 정비에 흔들림 없이 헌신해 온 경륜은 오늘의 교구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교구는 예로부터 태고종의 포교·문화·전법을 이끄는 중심지로서 종단의 위상을 지켜 온 지역"이라며 "자관 스님이 다시 종무원장의 소임을 맡아 주심으로써 부산교구가 전국 교구 가운데 선도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월 6일 부산 자비암에서 열린 제21대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장 취임식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왼쪽)이 자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어 호법원장 구산 스님, 정오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 지허 스님(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협의회장), 도성 스님(지방종회 의장)이 축사했다. 재가불자를 대표해 서지영 국회의원(동래구)과 장준용 동래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교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자관 스님은 월봉 광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개인택시 법륜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재가 공동체 불교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현재 동래구 불교연합회장을 4회째 맡고 있으며, 태고종 총무원장상과 조계종 포교원장상, 부산광역시장상 3회, 교통부장관상, 해운대구청장상, 부산경찰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장병주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 취임

12월 8일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장병주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신임 회장(오른쪽)과 정종원 전 회장의 기념 촬영 모습.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12월 8일 국제식품 양정점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을 열고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을 알렸다.

장병주 신임회장은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지역 재가불자의 모범적 모임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는 신행이 포럼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역대 회장단이 닦은 토대 위에서 포럼이 지역 불교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년 동안 포럼을 이끌어 온 정종원 전 회장은 "새로운 회장이 포럼의 미래를 더욱 굳건하게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병주 회장은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사무총장을 10년간 맡아 조직 운영을 총괄해 왔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사무총장, 사상구 모라동 운수사 신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보현장학회, 올해 장학금 3110만원 지원

설립 30주년…12월 5일 수여식



보현장학회(이사장 정여 스님)가 올한 해 동안 총 61명의 학생에게 31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꾸준한 발걸음을 이어 갔다.

12월 5일, 장학회는 삼랑진중고등학교에서 제2차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0명 등 총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삼랑진고 학생들에게는 총 1000만원, 삼랑진중 학생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돼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앞서 11월 22일, 장학회는 여여선원에서 제1차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해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4명 등 3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대학생 장학금 1400만원을 포함해 총 2110만원이 전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문화대상에 일운 스님·김성규·김연호

영축문화재단, 12월 30일 통도사서 시상식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에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과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 김연호 제천 진주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 스님)은 12월 9일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인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 김연호 제천 진주동물병원장(왼쪽부터).

포교(원력) 부문 수상자인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은 심전복지관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2011년부터 '열반만일 수행결사회'를 결성해 미국·싱가포르·유럽 등 전 세계 2만여 명에게 매일 아침 '마음의 편지'를 보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다.

학술(문화) 부문 수상자인 김성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는 38년에 걸쳐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해 '우리말 불교경전 총론'을 발간하는 등 불교 교학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봉사(실천) 부문 수상자인 김연호 제천 진주동물병원장은 제천 거사림회 창립과 운영, 불교 문화유산 기증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50여 년간 지역 불교 활성화에 헌신해 왔다.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30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2주기 추모 다례재와 함께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이날 부산 해동고 장학금 전달식도 열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찬불가로 밝힌 자비의 등불

2025 부산불교합창제 성료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옥희)가 주관한 '2025 부산불교합창제'가 불자들의 정성 어린 음성공양 속에 성대히 열렸다. 12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합창제는 부산 시내 주요 사찰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등 10여 팀이 참가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불교문화의 장을 이뤘다.〈사진〉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은 치사를 통해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으로 승화한 수행의 공양"이라며 "가사 하나, 음정 하나에 담긴 법문이 중생의 마음을 맑히고 평화를 전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무대에 오르는 합창단 모두 자신의 노래가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는 등불임을 기억하고, 원력으로 가득한 무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옥희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찬불가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합심해 만들어 내는 공덕의 노래"라며 "이 자리가 부처님의 법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공연에서는 사찰별 합창단이 그동안의 수행과 정진을 담아 낸 다양한 찬불가 무대를 펼쳤다. 부산불교연합합창단을 시작으로 삼광사 화엄합창단, 혜원정사 합창단, 대광명사 소리장엄 합창단, 불지사 합창단, 선암사 마하야나 합창단 등이 차례로 울림 깊은 선율을 선보였다.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의 순수한 음성은 행사장을 더욱 맑게 채워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신뇨엔, 연제구 '사랑의 김장나눔' 후원

12월 5일 전달식…10년째 참여



재단법인 신뇨엔(대표원장 정경국원)이 12월 5일 연제구청에서 열린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신뇨엔은 올해 300만원을 후원하고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김장 담그기 봉사에 동참해 지역사회 복지에 힘을 보탰다.〈사진〉

대표원장 정경 국원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뇨엔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김장나눔 후원과 봉사에 참여해 왔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10년 동안 변함없이 나눔을 이어 온 신뇨엔의 지속적인 관심과 온정이 연제구 복지 안전망을 더욱 든든하게 만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엄사, 미디어 노출 효과 '145억원' 창출

화엄사, 동국대 WISE캠 공동 분석
홈페이지 접속 1000만 명 돌파
"보는 사찰서 머무는 콘텐츠 진화"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 화엄사가 '문화공간 확장'이라는 홍보 전략을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올해 열린 화엄문화제 중 요가대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구례 화엄사가 '문화공간 확장'이라는 새로운 사찰 홍보 전략을 통해 미디어 노출 효과 145억원, 홈페이지 연간 접속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다양한 문화 행사로 화엄사가 호남 및 지리산 문화·관광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와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위원장 성기홍)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과 공동으로 '2025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이미지 노출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23·2024년과 마찬가지로 공중파·종편 뉴스, TV 문화 프로그램, 온라인 포털,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지리산 화엄사' 관련 키워드와 이미지를 CPT 방식으로 정량화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것이다.

그 결과 올해 미디어 노출 효과는 총 1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홍매화 사진대회가 78억4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모기장 영화음악회 24억원, 화엄문화제 17억원, 요가대회 5억4000만원, 기타 프로그램 2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매화 축제는 2024년 25만 명, 2025년 30만 명이 찾으며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했다.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구례가 불교의 역사적 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확장되며 관광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쉬프트 효과"라며 숙박업·카페·음식점 등 지역 상권 증가 통계를 근거로 분석했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이번 성과가 "전임 주지 덕문 스님의 지역 중심 포교와 문화 활동의 결실"임을 언급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엄사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구례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엄사의 미디어 노출 가치는 2021년 37억원, 2022년 46억원, 2023년 82억원, 2024년 120억원, 2025년 145억원으로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홈페이지 접속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 2023년 일일 3000명에서 2025년 2만 6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월평균 접속자 역시 9만1000명에서 67만4000명으로 늘었다. 연간 접속자 수는 올해 100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문승옥 구례군 부의장은 화엄사가 "구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홍매화 사진대회와 같은 문화행사가 대규모 방문객을 유도하며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 확산에 따른 주민 일자리 증가, 계절 관광객 확대, 공동체 행사 활성화 등 다양한 파생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기획위원장은 △문화확장형 마케팅 △SNS 이미지 확산 △포털·리뷰 플랫폼의 긍정적 반응 △대규모 축제 효과 △인지도 상승 △문화관광 트렌드 강화 등을 변화의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향후 홈페이지에 숙박·맛집·문화유산·카페 등 정보를 유료 콘텐츠로 연결해 "보는 사찰에서 머무는 콘텐츠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 미타암, 7년 불사 회향하며 '자비나눔'

12월 9일 공양간 등 불사 회향
장학금–이웃돕기 후원 자비나눔
"기도 수행 나눔 도량으로 발돋움"



양산 미타암이 7년간 진행해 온 불사를 마무리하고 12월 9일 공양간 및 주변 정리 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양산 미타암(주지 동진 스님)이 7년간 진행해 온 불사를 마무리하고 12월 9일 공양간 및 주변 정리 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나동연 양산시장, 자재천 불교사무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회향식은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감사패 증정,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기금 전달, 경과보고와 인사말, 축사와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미타암은 이희종 양산시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오상호 웅상출장소장에게 라면 1000박스를 전달하며 불사 공덕을 자비나눔으로 회향했다.

주지 동진 스님은 경과보고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불사는 실제 공사 기간 2년을 포함해 준비와 기반 정비까지 약 7년에 걸친 원력의 결실"이라며 "험준한 지형 속에서 접근로 개설과 급·배수 문제 해결, 주변 환경 정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사부대중과 인연들의 정성으로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새 공양간은 신행과 수행 공간을 갖춘 복합 공간"이라며 "기도와 수행, 공양과 나눔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미타암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양간 및 주변 정리 불사에는 약 23억원이 투입됐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법문에서 "미타암은 신라 646년 원효 대사의 수행 인연이 전해지는 영남 최고의 관음기도 도량으로 그 법맥을 이어 오고 있다"며 "동진 스님이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원력을 세워 사부대중이 편안히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을 완성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미타암에서 세운 기도의 원력이 지역을 넘어 나라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오랜 시간 정성과 원력이 쌓여 공양간 불사가 원만히 회향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불사가 미타암을 찾는 불자와 시민에게 더욱 편안한 기도 도량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서영호 양산시 문화관광과 주무관, 서금석 시천건설 사장, 김재경 범진전기 사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미타암은 "불사 회향을 계기로 기도·수행·공양·나눔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하의 날씨에도 '캠플스테이'는 계속

해군사관생도 19명 참가
절 마당 텐트, 불교 체험



지리산 자락에서 미래 해군 장교들이 특별한 체험을 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2월 5~6일 경내 화엄원 앞마당에서 '캠플스테이 하신화심(下身華心)'을 열고, 해군사관학교 생도 19명을 초청해 영하의 추위에도 야외 텐트 캠핑을 진행했다.

혹한기에도 자연과 마주하며 마음을 비추는 특별한 체험을 이어 간 이번 프로그램은 생도들에게 엄격한 군사훈련에서는 얻기 어려운 사유와 내적 성찰의 시간을 선사했다.

생도들은 지리산의 바람과 고요한 숲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진필승 해군사관학교 군종실장(중령)은 "자연의 품에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은 시간은 생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영감을 주었다"며 "미래의 리더로서 각오를 다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학년 김은기 생도는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으면 휴대전화만 보며 지나갔을 텐데, 삶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다음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엄사 홍보국장 범정 스님은 환영사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며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보다 먼저 건강한 마음, 강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찾아가는 법회' 감동 어르신께 '회향'

정읍 보림사, 어르신 孝큰잔치
12월 6일 정읍국민체육센터서



매월 찾아가는 초하루 법회를 통해 전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가 어르신 효큰잔치를 개최했다.

12월 6일 정읍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보림사 어르신 효큰잔치'에는 4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해 따뜻한 점심식사와 함께 개그맨 손헌수 등이 출연하는 신바람 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매월 음력 초하루마다 마을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보림사 찾아가는 초하루 법회'를 보고 감명받은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선운사 부주지 운천 스님,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윤준병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과 어르신 4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최 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행사장에 도착한 어르신들은 보림사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갈비탕으로 점심식사 후 축하공연을 즐겼다.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은 "보림사에 부임한 이후 많은 마을을 찾아 다니며 음식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런 큰 행사도 열 수 있었다" 며 "그동안 27개 마을을 다녔는데 새해부터는 정읍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용인불교계 "지역 불교 활성화를"

12월 7일 호국선봉사서 송년법회 봉행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발원하는 '2025 용인불교 송년법회'가 12월 7일 호국선봉사에서 봉행됐다.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와 용인불교신도회 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지역 스님들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현태주 용인불교신도회장, 시도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장 정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추진된 불사가 원만히 회향한 데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불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 모두가 즐기는 문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의 대표적 인물인 김윤후 승장 추모사업을 기념 전각 조성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용인불교의 거점이 될 용인불교문화회관 건립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지역 불교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법석에 오른 자광 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용인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스님은 "용인시가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도시 용인이 아닌 문화도시 용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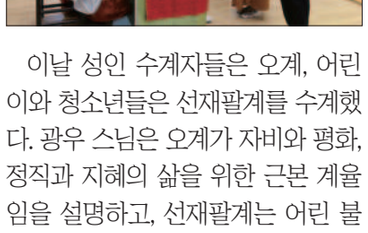
특히 "문화도시 용인의 상징은 처인성이고, 그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분이 김윤후 스님"이라며 "이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고 선양하는 사업에 불교계는 물론 시와 관계기관 모두가 원력을 모아 문화도시 용인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광 스님은 용인불교사암연합회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며 지역 불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 청년 포교를 위해 용인 소재 대학 불교동아리 3곳에 동아리 운영 지원금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수덕사, 만공 스님 열반 79주기 추모다례

12월 9일 정혜사 등서 봉행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12월 9일 산내 암자인 정혜사에서 만공 스님 열반 79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전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대전 청화사 주지 효경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중은 다례재에 앞서 만공 스님의 진영을 봉안한 금선대와 만공탑을 참배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설정 스님은 "만공탑에 새겨진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과 '백초시불모(百草是佛母)'가 만공 스님의 깨달음 세계를 응축한 표현"이라며 "만공 스님의 법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림"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정법사, 오계·선재팔계 수계산림

12월 6일 신도 384명 동참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12월 6일 만불보전에서 삼귀의계·선재팔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유치원 원아들과 학부모, 대학생, 재가불자 등 384명이 동참해 삼보에 귀의하고 불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서원했다.

수계법사인 광우 스님은 법문에서 "계율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며 "계는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기준이며, 일상 속 실천이 곧 수행"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인 수계자들은 오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선재팔계를 수계했다. 광우 스님은 오계가 자비와 평화, 정직과 지혜의 삶을 위한 근본 계율임을 설명하고, 선재팔계는 어린 불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약속임을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35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 개최

12월 5일 창원 성주사서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는 12월 5일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35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문학상 김병수 시인, 예술상 이상용 극작가, 언론상 정은희 MBC경남 편성부장, 행원상 김장하 선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각 상금 700만원과 금동향로 상패가 수여됐다.

법안 스님은 봉행사에서 "지난 35년간 산해원문화상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역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왔다"며 "올해 수상자 네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해 온 선구자들"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심사위원단과 연합회 스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연합회는 산해원문화상의 정신을 이어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자광 스님 오도송, 국악가요로 재탄생

대불련총동문회 · (사)대불, 신곡 발표 기자회견

'오도송' 의미 살려 작사하고
권노해만 작곡, 양슬기 노래
'알았네' '마음타령' 음원 공개
자광 스님 "일체유심조 깨닫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선불교에서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 그 경험과 통찰을 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오도송(悟道頌)'이라 한다.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의 오도송이 가요로 재탄생했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최승태)와 사단법인 대불(이사장 명호근)은 12월 9일 서울 대학생·청년전법센터에서 자광 스님의 오도송 '알았네' 신곡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광 스님과 권노해만 작곡가, 양슬기 경기민요 이수자, 최승태 대불련총동문회장, 명호근 대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자광 스님의 오도송이 가요로 재탄생한 것은 최승태 회장이 올해 초 용인 금강선원에서 자광 스님의 오도송 비석을 보고 난 후다. 최 회장은 "눈 덮힌 오도송 비석을 보고 이 내용을 대중들이 저잣거리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가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며 "이에 송가인의 '월하가약'을 작곡한 유명 작곡가 권노해만 씨와 대불련 출신 양슬기 이수자가 참여해 '알았네'와 '마음타령'이라는 곡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악가요 '알았네'와 '마음타령'의 음원이 최초로 공개됐다. '알았네'는 권노해만 작곡가의 특유의 깊고 섬세한 감성이 담긴 멜로디 라인에 깨달음의 메시지를 현대인의 감각에 맞춰 풀어 낸 국악가요다. '마음타령'은 조금 더 흥겹고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빠른 템포로 구성됐다. 이들 노래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12월 21일, 1월 4일 각각 발매될 예정이다.

권노해만 작곡가는 "자광 대종사님의 오도송을 대중들이 부를 수 있는 가요로 제작하게 돼 영광"이라며 깨달음이 담긴 불교콘텐츠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알아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 열린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오도송 '알았네' 신곡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인 CD를 권노해만 작곡가(왼쪽)와 양슬기 경기민요 이수자(오른쪽)가 자광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양슬기 이수자는 "오도송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노래하기 위해 동문 선배님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준비해 왔다"면서 "불교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좋은 말씀을 노래를 통해 알아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신의 오도송을 가요로 제작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한 이유에 대해 자광 스님은 "나 혼자만의 주장으로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다면 단어는 중요치 않다"고 했다.

자광 스님은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도 담겨 있지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잘 써야 좋은 사람이 된다. 모든 것은 마음이 관건"이라며 "이것이 내 오도송의 요지다. 가요 '알았네'를 통해 이 내용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광 스님은 오도송 가요 '알았네' 저작권을 대불련 총동문회에 양도했다. 저작권 수익은 포교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탐욕, 분노보다 더 위험한 어둠

㉒ 치(痴)

분노와 증오는 자기 욕망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욕망에 대한 과도한 탐착은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은 탐진치 삼독 중에서 가시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가장 위험한 독이다. 어리석음[痴]-탐욕[貪]-분노[瞋]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면 이 삶의 쳇바퀴가 바로 금생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통의 윤회이다. 그러므로 붓다가 자애와 함께 지혜의 체득, 깨달음의 증득을 수행의 최종 목적으로 삼은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은 무엇일까? 대략적으로 서술해 보자. 참된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삶의 이치를 왜곡하여 아는 것을 말한다. 또는 사물과 사태의 실상에 어두운 것을 말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 즉 인과의 법칙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마음가짐이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다.

痴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행위를 한 사람도 즐거움을 누린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선한 행위를 한 사람도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나 악업의 과보가 익으면 악한 사람은 화를 당하고 선한 사람은 복을 누린다."

〈법구경〉에서 말하는 인과의 실상이 준엄하지 않는가?

어리석음은 무명(無明)으로 일컬어진다. 무명은 고통스런 삶의 악순환을 서술하고 있는 십이연기의 첫 번째에 놓여 있다. 〈상윳따 니까야〉의 '무명경'에서 무명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리불 존자의 동료 수행자가 묻는다.

"도반 사리불이여, '무명', 무명이라고들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무명입니까?"

"도반이여, 고성제에 대한 무지, 집성제에 대한 무지, 멸성제에 대한 무지, 도성제에 대한 무지를 일러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헤아려 보자. 삶의 불안과 고통의 모습과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삶을 극복하고 열반을 체험할 수 있는 팔정도를 실행하지 않음이 무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승경전인 〈원각경〉에서는 무명은 무명이라는 별도의 고정 불변의 어떤 실체가 아니라, 미망의 꿈을 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이 어리석음에 갇혀 있음을 알지 못함이 최악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욕락을 버리고 구도의 길에 선 출가자들이여,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잘 통찰하면서 가야 할 길을 고고히 가라."

붓다의 십대 제자인 우바리 존자의 게송이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길을 가는 발심과 원력이 생생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화순 불암사 주지〉

해외불교는 지금

동남아 각국 역대급 호우
현지 불교계 등 피해 막심

다수 사찰도 침수 및 붕괴
일부 긴급 대피소로 이용

최근 1주일간 동남아시아 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지 불교계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일반적으로 매년 6월부터 9월까지가 우기였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1월을 넘어 현재까지 폭우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에서는 불교계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2월 3일, 국제 불교뉴스 미디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각 외신들을 인용해 동남아 각국 불교계의 피해에 대해 전했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에 연쇄적으로 쏟아진 폭우는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키며 14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가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이번 '물 폭탄'은 단순한 우기의 수해를 넘어, 이례적 열대성 폭풍과 기후 변화가 결합한 복합 재난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태국의 경우 남부지역의 숲속에 있는 안거센터들과 지역 사찰들에 피해가 보고됐다. 국제참여불교연대(INEB)는 "남부 송클라주 소재 비구니 스님들이 머무는 사찰이 폭우로 모든 교통이 차단돼 식료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긴급구호 모금에 나섰다. 태국 당국은 이번 폭우로 남부 8개 주에서만 약 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의 경우 수도 콜롬보 전역이 홍수로 침수된 것은 물론 산악지역은 대규모 산사태로 고립되는 곳도 생겼다. 많은 사찰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사찰이 매몰되거나 불탑이 붕괴된 곳도 보고되고 있다. 고지대에 위치해 비교적 피해가 덜했던 사찰들은 현재 긴급 대피소 및 구호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피소로 운영 중인 한 사찰에 머무는 이재민은 "사찰에서 법당과 강당을 임시 거처로 내주었으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우기 때 홍수피해를 입는 건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은 너무나 심각하다. 모든 기본 물자가 부족하다"고 피해상황을 전했다.

현재 스리랑카는 약 21만8000명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당국은 모든 힘을 동원해 구호 및 구조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폭우가 시작된 베트남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안의 여러 고택과 사찰들에 침수 피해가 잇달아 보고됐다. 호이안 고택을 담당하는 학예사들은 "폭우가 예년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물들 마다 1m 이상의 받침대를 설치해 높이를 올렸으나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태국 역시 수도 방콕을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 강이 범람하면서 강가에 위치한 여러 사찰들에 침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현지의 불교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구호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해를 피한 사찰들이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불교계를 중심으로 구호금 모금과 생필품 기부를 받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침수된 사찰을 가리키며 피해를 설명하는 스리랑카 스님. 사진 출처=AFP통신



현시대에 맞게 되살린 붓다의 가르침!
불교 이후
세계적인 불교 사상가 스티븐 배철러가 전통적인 불교 해석을 넘어 우리 시대, 현시대에 맞게 불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신선한 시각을 제시한다.
스티븐 배철러 지음, 강병화 옮김, 신국판, 532쪽, 값 30,000원

업과 윤회에 대한 알기 쉬운 입문서!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업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하고, 그것이 지닌 현대적 의의에 대해 성찰하는데, 다양한 경전과 설화를 인용해서 이해를 돕는다.
히라오카 사토시 지음, 법장 옮김, 신국판, 256쪽, 값 18,000원

세계적인 명상 스승과의 문답!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
현대 최고의 마음챙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반테 G.(애칭) 스님이 지난 반세기 동안 주고받은 다양한 대화를 간결하게 집대성하여 20개의 주제로 엮었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박경미 옮김, 신국판, 384쪽, 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전통사찰 65% 산불 위험 '높음'…"광역소화시설 필요"

조계종 문화부 전문가 좌담회
문화유산 사찰 재난 시설 마련
소화전만으로 산불 진화 불가능
김동현 "30배 이상 시설 필요"
수막 형성 광역시설 설치 제안
스님 및 전문가들 토론 이어 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8개 전통사찰의 산불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65%에서 '높음' 이상의 위험도가 나타났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찰이 보유한 소화시설만으로는 사실상 진화가 불가한 만큼 광역소화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는 12월 9일 서울 광화문 포룸에서 '문화유산 보유사찰 재난 대응시설 마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의성 산불로 고운사가 전소되는 등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재난 대응시설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조발제자로 참여한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사찰의 화재 대응 시설 현황 및 대응 방안 고찰'을 통해 현재 한국 전통사찰에 필요한 방재 시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이 증가 추세임을 짚은 김 교수는 "올해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 산불 확산 거리가 78km에 달한 정도로 방대했는데, 중부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안까지 번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의성 고운사는 3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화마의 피해를 입었고, 이는 의성 산불 발화 시점과는 약 2일 간의 차이가 난다.

김 교수는 "고운사에서 대응할 시간은 있었고 대응도 했지만, 넘어온 불은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사찰 소화시설은 △옥외소화전 △방수총 △호스릴 △소화기 등으로 대부분 초기화재나 특정 전각의 화재 진압용이다. 발화점이 다양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0배가 많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12월 9일 서울 광화문 포룸에서 '문화유산 보유사찰 재난 대응시설 마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좌담회 참가자 기념촬영 모습.

더불어 김 교수는 국가유산청 연구사업을 통해 조사된 전통사찰 산불 위험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98개 전통사찰의 산불 위험도는 매우 높음(7.5~10) 19곳, 높음(5~7.5) 45곳, 보통(3~5) 29곳, 낮음(1~3) 5곳으로 확인됐다. 조사 사찰 중 65%가 위험도 '높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미리 물을 뿌려 산불로부터 문화유산과 숲을 지킬 수 있는 '산불 방지 스프링클러'와 광역산불소화시설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물을 받아 놓은 종이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듯, 인근 산불 발생시 사전 살수를 해 놓으면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산림청 주도로 휴양림 위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데 사찰의 신청은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다.

광역산불소화설비(아쿠아돔)는 사찰 경내 권역별로 수막(水幕) 설비를 설치해 산불 발생 시 유기적으로 전각을 지킬 수 있게 방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당 설비는 스페인 발렌시아주 토렌트시 소재 숲에 설치돼 수목림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개소의 방재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방염재료로 부각된 방염포는 시중에 저성능 방염포가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완벽한 보호가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 교수 연구팀이 고성능 방염포를 개발했으나 무게로 인해 설치가 용의치 않아 보완이 필요함을 밝히며 이를 해결한 장치 구조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역사 속에서 사찰이 왕실의 사고를 수호하고 왕실 산림과 능침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음에 주목해 "현재의 사찰림이 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만큼 국가유산 차원에서 사찰과 사찰림이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인 이왕기 전 목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위원 현무 스님, 홍은영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조인숙 다리건축 대표, 박재성 숭실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한홍익 해인사 종무실장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앞서 성원 스님은 "오늘 좌담회는 경북 산불과 같은 처참한 피해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찰 대응 체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될 고견을 바탕으로 종단은 정부와 협의해 기후 위기 상황에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리기능장도 취득…'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인기

문화사업단, 10일 자격증 수여식
91명 합격 영예… 역대 최다 인원
일화 스님 "정진 노력에 찬사를"

"향적세계에서 처음 사찰음식을 접하고 곧바로 매료돼 대전 영선사에서 법송 스님께 사찰음식을 배웠습니다. 초급부터 전문과정까지 배우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제가 취득했던 어떤 자격증 시험보다 설렜고 뿌듯합니다."

대학에 출강하며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서수연 조리기능장은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린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에서 자격증 취득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조리기능장은 조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기능인이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실기 합격률이 11% 수준인 조리 분야 최고 자격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서 조리기능장은 "최근 자연주의 음식이 트렌드인데 학교에서 사찰음식을 가르치면 반응이 매우 좋다"면서 "몸을 이롭게 하는 사찰음식을 배우고 한식의 맥을 이어 간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은 조계종이 공인한 유일한 사찰음식 관련 자격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나 사찰음식 특화사찰에서 진행하는 초급·중급·전문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합쳐 총 9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는 2015년 제도 시행 후 최다 인원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합격자들에게 자격증을 전달한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사찰음식은 생명존중과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수행음식이자 한식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음식문화"라며 "사찰음식 전문조리사가 된 여러분들은 사찰음식에 담긴 철학, 나아가 사라져 가는 한식의 문화원형을 계승하는 음식 수행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동안 쉼 없이 정진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며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과 행복을 얻기를 기원한다"고 치하했다.

신중일 기자

태고 보우 국사 선양·조명할 학회 창립

12월 13일 충남대 문원강당
출범식 및 제1회 학술대회
'태고 선사상' 집중 조명해



태고 보우 국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학술적으로 집중 조명하는 학회가 창립됐다.

태고불교문화학회는 12월 13일 충남대 문원강당(대덕캠퍼스)에서 학회 출범식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태고불교문화학회는 태고종 소속 사찰과 스님들, 불교계 전문 연구자들이 협심해 창립됐으며 태고 보우 국사의 면면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은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

'태고 선사의 동아시아 선종사적 위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태고 보우 국사의 선사상의 의미와 그 가치를 집중 조명했다.

김방룡 교수는 '태고 보우의 선사상과 그 위상'을, 김진무 충남대 교수는 '중국 임제종 전승에서 본 태고 보우의 사상적 위상'을, 권동우 원광대 교수는 '태고 보우와 난포 조묘의 선사상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장은 '태고 보우의 대승경전 이해와 보살정신'을,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근현대 불교계의 태고 인식과 종조관'을 소개했다.

태고불교문화학회를 준비해 온 법우 스님(용월사, 문학박사)은 "태고종 소속의 사찰과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귀한 뜻을 모아 학회 창립을 지원했다"면서 "불교학계 학자들과 태고종 소속 인재들이 동참해 불교 학술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학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 및 학술대회 차주상보〉
신중일 기자

올해 겨울방학엔 '내소사 한문학당'으로

내년 1~2월, 세 차례 진행돼

겨울방학을 맞아 한자도 배우고 요가, 명상, 트레킹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는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내소사 한문학당' 특별 템플스테이를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소사 한문학당'은 한자자격증 초급 수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게임, 퀴즈 등 놀이형 학습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자 학습 외에도 예절교육, 명상, 요가, 트레킹 등 아이들의 바른 생활 습관과 내면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끈다.

'내소사 한문학당'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자 강의(1~7강) △요가·명상 △108배 염주 만들기 △직소폭포 트레킹 △캠프 파이어 △연등 만들기 △키링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일정은 △2026년 1월7일~10일 △2026년 1월21일~24일 △2026년 2월 5일~8일 세 차례 걸쳐 진행된다. 010-4082-7282

신중일 기자

백용성 조사 유훈 기릴 기념관 개관

장수 죽림정사에 994.8㎡ 규모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백용성 조사의 유훈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건립됐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이사장 법륜 스님, 이하 사업회)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2월 8일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백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과 대중불교의 유훈을 기리기 위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은 사업회의 주도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 2022년부터 4개년에 걸쳐 지상 2층, 연면적 994.8㎡ 규모로 건립됐다. 기념관은 백용성 조사의 생애·사상·독립운동 활동을 체계적으로 담은 전시공간과 교육·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용성사상의 유지를 받들고 선양·전파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신 불심 도문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도문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용성사상을 전하기 위한 용성교육관, 용성기념관 불사를 계획했다. 이를 통해 용성사상이 널리 선양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와 국가보훈부는 12월 8일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관 개관식 테이프 커팅식. 사진=국가보훈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백용성 스님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일상에서 되새길 수 있는 기념관이 개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백용성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장수 출신의 백용성 스님은 독립운동과 민중계몽운동을 주도한 불교계의 대표 인물로, '대각교(大覺教)운동'을 통해 불교 정화와 대중불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고, 기미독립선언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옥고를 치렀다.

이후 선농일치 및 사원경제 자립운동의 일환으로 만주에 선농당을 설립하고 농장을 마련, 일제의 탄압을 피해 유랑하는 동포들에게 생활 터전을 마련해 줬다.

또 경남 함양에 화과원을 설립해 농장 경영 수익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정부는 그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신중일 기자

성보박물관 관장회의 및 협회 총회 성료

12월 9일 불일문화회관서
우수 학예사 등 시상식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 이하 박물관)과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협회장 서봉 스님, 이하 협회)는 12월 9일 서울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성보박물관 관장 회의와 성보박물관협회 정기총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경 스님(수덕사근역성보관장), 해운 스님(월정사성보박물관장), 법기 스님(동화사성보박물관장), 현석 스님(해인사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통도사성보박물관장) 등 24개 성보박물관 관장 및 학예연구사 등 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성보박물관 지원사업 보고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개최된 협회 정기 총회에서는 △성보박물관 운영위원 선출 △성보박물관협회 연수 개최안 재심의 △감사 선출 △2026년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등을 논의했다.

협회 운영위원으로는 진성 스님(선운사성보박물관장)과 법오 스님(무위사성보박물관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홍순욱 학예연구실장(월정사성보박물관)이 선임됐다. 협회 연수는 중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협회관 대상으로 성보박물관 콘텐츠 및 신규 사업 공모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우수성보박물관상 및 우수학예인력상 시상'이 진행됐다.

2025년 우수성보박물관상(총무원장상)은 월정사성보박물관에게 돌아갔다. 우수학예인력상 총무원장상은 김태형 학예연구실장(송광사성보박물관), 김지혜 학예연구실장(수덕사근역성보관), 협회장상은 홍순욱 학예연구실장(월정사성보박물관)이 수상했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0~12/1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성전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2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관스님	동국대학교출판부
3	지장경	광덕 역	불광출판사
4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5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법상/용정운	조계종출판사
6	수호신 기도	묘장	민족사
7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법상	민족사
8	윤회와 해탈	이중표	불광출판사
9	자비도량참법	운허역/선나원약	운주사
10	홀연히 깨어나는 신심명	원제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지음	아시아문화커뮤니티
3	입보살행론	샨티데바/석혜능	부다가야
4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샘터사
5	부처님의 당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6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법장	운주사
7	수행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8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치유하는 유식읽기	서광스님 강의	공간
10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속리산의 글자를 다시 깨우다



속리산 법주사 비문

철운 스님 엮음

금오문도장학회

전 법주사 강주 철운 스님 역작

속리산 비문 직접 기록하고 해석

비명 · 사적기 · 암석 각자 등 57건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속리산은 예로부터 '속세[俗]를 떠나는[離] 산'으로 불리며, 자연과 수행이 만나는 한국불교의 대표 성지로 여겨져 왔다. 속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법주사는 수많은 고승 대덕이 법맥을 이어 오늘날까지 그 수행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 속리산과 법주사 곳곳에 새겨진, 역사를 품은 글자들을 한데 모은 책이 나왔다.

금오문도장학회(회장 도공 스님)가 펴낸 〈속리산 법주사 비문〉은 법주사 인근에 남은 비문과 사적기, 암석 각자 등 57건을 정리해 속리산의 역사와 수행의 숨결을 되살린 기록물이다.

법주사 강주를 역임한 철운 스님은 1998년부터 학인들에게 역대 조사들의 발자취를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비문 조사에 나섰다. 이후 15년 동안 스님은 수십 개의 암자와 옛 절터, 부도와 비석을 찾아 하나하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틈틈이 번역했다.

특히 스님이 고안한 '분탁(粉拓)' 방식이 눈길을 끈다. 이는 마모된 글자에 밀가루를 뿌려 글씨를 판독하는 것으로, 비석을 두드려야 하는 탁본과 달리 손상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비석을 찾는 과정에서 무명의 부도 2기를 바로 세우기도 했다. 2010년 속리산 관음봉 아래 옛 대암사 터 부근에서 학인 스님 10여 명과 넘어져 있는 부도를 끌어 올려 원래 자리에 모셨고, 도굴꾼에 의해 윗부분이 땅에 떨어진 또 다른 부도의 부재를 제자리에 맞춰 둔 것.

이렇게 찾아낸 비문 글자들을 정리하고 해석한 내용을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책에는 법주사 자정국존 비명, 벽암 대사 비명, 동관음사 사적 비명, 수정암 사적비, 당간지주 조성 명문, 암석 각자 등 57건의 글자가 담겨 있다. 판독할 수 있는 한문 원문을 그대로 옮긴 뒤 한글로 해석하고 여기에 철운 스님의 해설과 주요 인물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스님은 현판, 주련, 비문, 바위 글씨 순으로 읽어볼 것을 권한다.



철운 스님.

철운 스님은 "하나의 비석 속에는 수행의 과정과 깨달음의 내용이 있고 시대의 역사가 있고 예술적인 조각이 있고 명문장과 명필이 담겨 있다"며 "비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정관 일선 선사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첫 번째 큰 보람이다. 선사는 임진왜란 당시 속리산을 지키며 대중 200여 명의 정진을 지도했다. 사제인 사명 대사가 의승으로 기개를 떨쳤다면 정관 일선 선사는 다른 방법으로 호국불교의 길에 나섰다. 또 하나는 동관음사의 규모와 도의 국사가 개창한 기록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책 발간과 관련해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는 "비문은 각각 그 시대의 존경 받는 명문장가들이 기록한다. 글 내용도 좋거니와, 개산 중창 중수 선사님들이 법주사의 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비문을 읽어 보면 저절로 자신의 해이하고 게으른 수행과 포교의 자세를 뉘우치게 된다. 이 비문 해석집이 후학들에게 큰 발심의 지침서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책을 펴낸 금오문도장학회장 도공 스님은 간행사에서 "문도 스님과 사부대중이 법주사의 역사와 고승 대덕의 자취를 바르게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 학술적 자료로 이용된다면 철운 스님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주사 부도전 전경.



철운 스님과 법주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은 2010년 속리산 관음봉 아래 옛 대암사 터 부근에서 넘어져 있는 부도를 끌어 올려 원래 자리에 모셨다. 사진 제공=철운 스님

새로 나온 책

부처님 가르침 담은 동화·동시 모음집



마음마당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대양미디어

1만원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권영주)가 펴내는 연간집 16집이다. 2025년 제42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작인 민금순 시인의 동시 '어쩌면, 사랑'과 김일환 작가의 동화 '다리 달린 달리' 요약, 신현득·김종상 시인의 신작 동시, 곽영석 극작가의 '선녀바위와 장자 못' 극본과 박춘근·설용수 작가 등의 수필이 실려 있다.

1982년 설립한 한국불교아동문학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아동문학을 꾸준히 발표하는 한편, 경전 개작 동화집을 출간하고 있다. 제42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및 전국어린이글짓기대회 시상식은 12월 3일 서울 예술가의집에서 열렸다.

본래 마음 안내하는 〈금강경〉 해설서



금강경 직지설법 2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1만6800원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니고, 허망한 일에서 벗어나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져 버리면 세상에 아무 일이 없어요."

김태완 무심선원장의 〈금강경〉 강설집 두 번째 책이다. 저자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는 선불교 정신에 따라 곧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을 가리켜 깨달음으로 이끈다. 본래 마음과 존재의 실상에 대해 바르게 알도록 다양한 비유와 설명으로 안내한다.

2권은 '여법수지분'에서 '구경무아분'까지의 해설을 담고 있다.

마지막 3권에는 '일체동관분'에서 '응화비진분'까지 실릴 예정이다.

오늘을 밝히는 366가지 지혜



하루 한 장 부처의 가르침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지음

심지애 옮김 / 시그마북스

1만6800원

스리랑카 상좌부 불교 장로인 저자가 하루 한 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려 엮었다. 〈법구경〉, 〈길상경〉, 〈아나율경〉, 〈자비경〉 등에서 발췌한 구절을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듬었다. '병은 기회다', '우울해지는 것도 위험한 분노', '공부만 하다가는 머리가 나빠진다' 등 일상에서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가득하다.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지만 언제든 마음 가는 곳을 펼쳐 읽어도 좋다.

저자는 1945년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13세에 출가득도했다.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거친 뒤 현재 일본 테라바다불교협회에서 초기불교 전도와 명상 지도에 힘쓰고 있다.



불일암에서의 15년, 나를 돌아보다



무언화
덕조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2000원

법정 스님 맏상좌 덕조 스님 수상집
매일 아침 쓴 글·직접 찍은 사진
"자연에서 '나'를 돌아본 시간"
침묵·비움으로 '자기 질서' 찾아야



12월 9일 열린 〈무언화〉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덕조 스님은 "불일암에서의 15년은 은사 스님이 저에게 주신 '보상 휴가'"라고 말했다.



덕조 스님이 찍은 '빠삐용 의자'. 법정 스님이 1975년 불일암을 지은 후 이듬해 땔나무를 이용해 제작한 의자다. **사진 제공=조계종출판사**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책 부제는 '깨달음의 꽃'이라고 썼는데, 사실 망상의 꽃입니다. 그러나 그 망상 속에서도 자신을 되돌아볼 길이 열리더군요."

법정 스님의 맏상좌 덕조 스님(서울 길상사 주지)이 신간 〈무언화〉에 대해 밝힌 소감은 담담했다. 스님은 "수행자가 책 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닌데, 인연이 닿아 글과 사진을 묶어 출간하게 됐다. 모두 망상의 파편들"이라며 웃음 지었다.

덕조 스님은 2010년 법정 스님 원적 후 유언에 따라 순천 송광사 불일암에서 수행 정진했다. 15년 만에 길상사로 돌아온 덕조 스님은 은사 스님이 당부한 '10년 수행'을 '휴가'라고 표현했다.

"한창 젊은 나이에 길상사에서 12년을 살았어요. 하루 세 시간 이상을 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치고 지쳤을 때, 불일암에 가게 됐지요. 은사 스님이 저에게 보상 휴가를 주셨다고 생각될 정도로 지난 15년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일암에서의 일상이 여유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법정 스님 원적 후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좇아 불일암을 찾는다. 이들은 깨끗하게 쓸린 마당에서, 정갈하게 가꿔진 채마밭에서 '법정 스님의 손길'을 느끼려 한다. 그러니 한시도 도량 관리에 소홀할 수 없었을 터.

"불일암과 저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자 은사 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책은 덕조 스님이 불일암에서 매일 아침 쓴 글과 직접 찍은 사진을 담은 책이다. 어려운 용어 대신 일상의 언어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새겼다. 이해인 수녀가 추천사에 쓴 것처럼 "일상의 도량에서 다시 정진할 수 있는 밝은 힘과 용기"를 전해주고 "가만히 명상하며 내면으로 웃고 깨달음을 고요히 피어오르게"하는 글들이다.

"대빗자루로 허공을 쓸어도 흔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으니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83p '흔적' 중에서

스님은 현대인들의 문제를 '자기 관리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몸이 아닌 마음과 영혼을 맑게 관리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뜻이다.

"현대인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 비교를 떠나면 '절대 불행'은 없습니다. 무소유의 정신도 여기서 시작하지요. 자연 속에서 마음을 늦추고 비우면 덜 불행해질 것입니다."

특히 법정 스님의 '자기 질서'를 강조하며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감시하고 바라보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불일암 생활 15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예불을 올리고 대중생활 규칙을 유지해 온 스님의 태도이기도 하다.

올해 진행된 길상사의 '무소유 템플스테이'는 현대인들이 '자기 질서'에 따라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다. 참가자들은 휴대 전화와 시계를 모두 반납하고 묵언해야 한다. 저녁 식사는 고구마나 옥수수로 대신한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적고, 하나씩 지워 나가는 '무소유 명상'도 진행한다.

"다들 처음엔 불안해하지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모두 대만족합니다. 말 없이 지낸 그 하루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과 덜어 냄 속에서 보낸 하루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채우는 경험은 곧 '자기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불일암에서의 시간이 성찰이자 인고이고 비움이자 감사였다고 말하는 덕조 스님은 책을 통해 우리를 조용히 격려한다. "삶은 결국 지금을 온전히 사는 일"이라고.

신라인의 가르침 '감통'
〈感通〉



신라 시대 불교교육사
안경식 지음
학지사
2만3000원

신라 시대를 '불교적 지식의 유통·변용·소비'라는 렌즈로 새롭게 읽어낸 불교교육사 탐구서다. 30여 년간 관련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향유하는 것은 신라인이 그것의 유통과 변용, 소비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짚는다.

1장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역사를, 2장은 신라 유학승들의 활동을 살핀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자장·원효·의상·진표 스님 등 고승들의 교육자적 모습에 주목한다.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미타·미륵·관음신앙 등 민중불교가 신라인의 교육에 미친 영향을, 10장은 화엄사상이 신라 불교교육에 끼친 파장을 고찰했다. 11장은 강경의례와 불교교육의 상관성을, 12·13장은 신라 하대 선불교가 도입되는 과정을 정리했다.

저자는 "신라인들은 거룩한 불보살과의 감통(感通)을 통해 불교적 지(知)를 내면화하게 되고, 이때부터 지의 유통자 즉 교화자로 나서게 됐다"며 "신라 시대의 불교교육사는 한마디로 감통의 교육사, 감응의 교육사다. 이는 신라인이 '무감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러 준 교육의 말후구(末後句)와 같다"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청소년 고민에 붓다의 답은?



붓다에게 물어봐!
박영동 지음
해조음
1만3000원

청소년들은 불안하다. 학업 경쟁에 진로 고민에 친구들과의 문제까지.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데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도 찾기 어렵다.

30여 년간 불교 종립학교 교법사로 청소년과 부대끼며 생활하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저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넨다. 완성된 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하다고, 이미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응원하기 위해서다.

책은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던진 후 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제시하고 경전 한 구절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구성했다.

마음·관계·미래 등 60가지 고민 정리
30년 경력 교법사의 '해답' 아닌 '공감'

'스마트폰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다'는 고민에는 먼저 "자꾸만 손이 가고, 없으면 불안하고, 중요한 일보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소식들에 마음이 끌릴 때 자신도 조절되지 않는 그 감각은 어느새 혼란과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면 이미 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격려한다.

이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 동안 숨 고르기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기 △자기 전에 전원을 끄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무언가를 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더 아끼고, 나와 더 가까워지는 연습"이라고 다독인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전한다.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땐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쉬렴. 너의 하루를 빛나게 할 시간은 작은 침묵 속에 숨어 있단다. 나는 언제나 그 고요한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또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인다'는 고민에는 "부처님도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알려 주고 "세상이 불공평하더라도 너의 마음까지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단다. 작은 정의, 작은 자비,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고 다독인다.

또한 책에는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다르면 이상해 보여요', '진심을 말하면 멀어질까 봐 겁나요', '진로를 떠올리면 막막하고 겁나요' 등 60가지 고민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마음·관계·공부·미래 등 6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지만 순서에 상관없이 눈길이 머무는 질문을 찾아 읽으면 된다. 한 꼭지를 읽고 난 후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 말이 내 삶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 봄으로써 그 뜻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다.

저자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설명 대신 부처님처럼 묵묵히 곁에 앉아, 함께 생각해 보는 작은 지혜를 건네고 싶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청소년 마음 밭을 일궈 가는 저자의 성심과 수행력, 도반애를 찬탄한다"며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의 용기와 신념이 더욱 굳세고 바르게 자라기를 발원한다"고 추천사를 썼다.

저자 박영동 씨는 동국대 불교학과와 한양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급 청소년지도사와 윤리·상담·종교 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공군 군종법사, 종립학교 교법사, 동국학원 수석법사, 전국교법사단장을 역임했다.

불교성전편집위원회 기획위원으로 불교 교육 코텐츠 확장에 기여하고,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연구소장으로 청소년 포교의 방향을 모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교육원장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청소년 통일법요집〉, 〈청소년 불교입문〉, 〈불교 내비게이션〉 등을 펴냈다. 현재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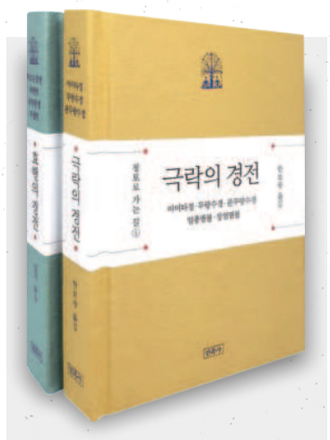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스테디셀러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2006년 8월 1일 불국사에서 열린 염불정진대회에서 종상 스님, 김재일 법사 등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전국염불만일회는 2015년 제13회 대원상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은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 (사)4월회 초대회장, 공동체의식개혁협의회 상임의장,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3·1문화재단 이사장, 홍익법무법인 고문변호사,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4년 8월 31일 송광사에서 열린 제27차 염불정진대회의 단체사진.



2025년 제28차 염불정진대회에서 정토법문을 하고 있는 안동일 회장.

지금 마음을 부처님처럼…"오직 나무아미타불"

특별인터뷰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은 늘 '나무아미타불'을 외고 또 외웠다.

58세에 시작한 염불 정진은 85세가 된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회향은 12월 21일. 염불로 쌓아 온 27년 5개월의 시간은 이제 단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다.

염불은 부처님의 모습과 공덕을 떠올리며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불교 수행법이다.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거나,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역사적으로는 758년(신라 경덕왕 17년)에 발징 화상이 정신·영순 등과 함께 호국불교 염원을 담아 염불만일회를 결성해 회향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1908년 금암 의훈 스님이 다섯 번째 염불만일회를 개설해 회향했다. 이로써 전국염불만일회는 여섯 번째 공식 회향 기록을 남기게 됐다.

안 회장은 1만일 회향을 앞둔 소회를 '환희심'이라고 밝혔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쁩니다. 염불 공덕이 10이라면, 1은 사후에 극락왕생하는 것이고 9는 금생에 이뤄진다고 하지요. 저 역시 염불 공덕으로 공직에 봉사하며 무탈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만일 동안 함께 정진해 준 도반들께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신심 깊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을 염불했고, 그가 다섯 살 되던 해 충남 예산 향천사를 찾아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했다. 대학 시절에는 황산덕 박사의 저서 〈열반종요〉, 〈복귀〉 등을 통해 불교 사상에 눈을 떴고, 세계불교대강좌에서 들은 청담 스님의 법문에 불교에 대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그러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1978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바쁜 현실에 불교가 자리할 여유가 좀처럼 없었다.

그러던 1993년 봄, 그는 다시 불교를 마음의 의지처로 삼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가 계기였다. 인생의 지남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의 죽음은 큰 상실로 다가왔다.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던 그는 송광사에서 열린 4박 5일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깊어졌다. 무작정 서울 조계사를 찾았고, 그곳에서 '삶의 전환점'이 된 김재일 법사도 만났다. 김재일 법사는 1982년부터 재가수행단체인 동산반야회를 결성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교육과 염불수행을 지도했다. 1992년부터는 조계사 인근에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이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1993년 9월 동산불교대학 3기로 입학한 그는 바쁜 변호사 업무 속에서도 통신반에 진학해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공부에 매진했고, 당대 최고 강사진의 가르침 속에서 정토수행에 매료됐다.

그러던 1998년 8월, 김재일 법사의 권유로 강원도 건봉사에서 열린 전국염불만일회 입재식에 참여하게 됐다. 1500여 명이 한마음으로 염불하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염불에 집중하는 수행자들과 철야정진에 나선 노년 불자들의 열정에 감동한 그도 염불 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기였던 만큼 그는 염불에 국난 극복의 마음을 담았다.

동산불교대 3기로 불교 공부 매진

58세 시작해 85세까지 염불 정진

매년 여름 정진대회서 수행 점검도

12월 21일, 염불만일회 회향 법회

"IMF로 모두가 힘들었죠. 나라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염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불 공덕 덕분인지 대한민국이 이례적으로 3년 만에 IMF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염불을 시작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만 58세였다. 1만일 염불 정진의 회향 시점을 계산해 보니 85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알아챈 딸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이어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응원을 건넸다. 그 한마디는 망설이던 그의 발심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렇게 염불은 자연스레 그의 일상이 됐다.

"불교에는 참선, 명상, 간경 등 다양한 수행법이 있어 참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염불은 이행도(易行道)입니다. 어려운 수행[難行道]은 지도자를 만나기도, 목적을 이루기도 쉽지 않은데 염불은 누구나 '나무아미타불'만 외면 되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원효 대사도 말년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강조했는데 '노는 입에 염불'이란 말도 그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물론 27년 5개월의 시간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업무와 일정이 겹치는 날도 있었고, 몸이 뜻대로 따라 주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모든 존재는 각자가 존귀하다. 삼계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라는 부처님의 탄생게를 되새기며 염불을 멈추지 않았다. 하루에 염불을 많이 하지 못 하는 날이 있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반드시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자 수행자로서의 다짐이었다.

그에게 염불은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붙잡고, 부처님의 마음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고자 하는 서원과 같았다. 그는 염불의 '염(念)' 자를 '지금 금(今)' 아래 '마음 심(心)'이 결합한 글자로 풀이하며 염불수행의 본뜻을 "지금의 마음을 부처님처럼 하라"고 설명했다.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줄이면 〈반야심경〉이고, 이를 다섯 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또 한자로 줄이면 '심(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단적으로 마음공부입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뭇 번뇌에 쌓여 성불하지 못했기에 염불수행으로 부처님 마음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안 회장은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을 맡아 도반들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 쌓아 왔다. 붓다클럽 등 정진 모임을 꾸려 일상 속 염불을 이어 갔고, 매년 여름이면 염불정진대회를 열어 전국 사찰을 순례했다. 건봉사와 통도사, 송광사, 백담사, 미황사, 은해사, 불국사, 월정사, 직지사 등지에서 200~300명의 도반이 모여 함께 염불하며 서로의 정진을 점검했다. 올해 여름에는 만해마을과 건봉사 등공대에서 제28차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해 그간의 정진을 돌아보고 수행 원력을 다졌다.

이제 1만일 염불 정진의 환희를 함께 나눌 회향 법회가 남았다. 회향 법회는 12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봉행된다. 법석에는 27년 5개월 전 만일 수행의 첫발을 함께 내디뎠던 300여 명의 도반들이 참석해 긴 세월의 염불수행이 맺은 결실을 함께 자축할 예정이다.

1만일은 회향하지만 그의 염불수행은 끝이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 이어 온 정진이 쌓여 만든 하나의 이정표일 뿐이다.

"깨달음은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습'이 돼야 한다. 이생에서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그 다음 생에 이어 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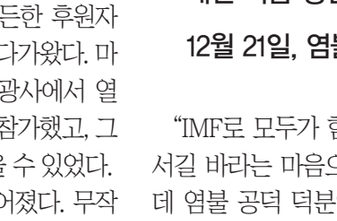
15년 전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에게 들은 한마디는 여전히 그를 염불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그의 염불은 현재진행형이다.

"염불수행은 가장 빠른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아미타경〉을 믿고[信], 염불의 서원을 세우고[願], 습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염불해야 합니다[行]. 제 숨이 멈출 때까지 염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극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7 괴로움은 분별에서



▶한줄 요약
세상 모든 것은 각자의 업(業)에 의해 스스로 모양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업의 모습은 항상 변하고 사라지고 다시 또 생기는 것이니,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자기 마음서 나온다

[오늘의 명상]
푸르고 고요한 텅 빈 허공에
밝고 맑은 영롱한 빛 눈이 부신데
그림자는 떨어져 깊은 그늘 드리우고
영롱한 빛은 흩어져 출렁이는 물결에 갈라진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깊으면 푸르러지고 고요한 것은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밝은 것은 어둠을, 맑은 것은 탁함을 만들고 빛이 영롱할수록 탁한 그림자와 흐린 그늘이 생기는 것은 사바의 모습이고 인과(因果)의 원리입니다. 이 모습들이 갈등(葛藤)과 같이 얽히고설켜 출렁이는 물결과 같은 우리네 삶을 비유한 시송(詩頌)입니다.

오늘 어떤 부부가 절에 참배를 와서 스님께 상담할 일이 있다고 하여 차담(茶談)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 보니 남편은 양팔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물어보기도 전에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사님의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약 7년 전에 작업 중 감전이 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처사님은 결국 양팔을 완전히 잘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차를 따라 주니 옆에 보살님이 먹여 줬습니다. "보조 팔을 쓰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워낙 상처가 깊어서 어깨에 걸 수 있는 뼈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목에 걸었던 손수건을 풀어서 자신의 얼굴을 닦는 모습을 보고 '남편을 무척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사님에게 "아직도 통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처사님은 "통증은 없으나 7년이 지난 지금도 팔과 손의 감각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마치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팔과 손의 감각은 있으나, 움직이지 않는 것에 더욱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데 얼마나 불편하냐"고 물으니 "이제는 면역이 되어서 그렇게 불편은 못 느낀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보살님이 남편을 보고 "마음이 무척 너그럽고 온순하다"고 거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용기를 주는 말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지가 멀쩡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도 본인의 마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사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하물며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많다"고 했더니 처사님은 "백번 공감한다. 저는 살아가는데 크게 불만을 갖지 않는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이야기를 이어 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각자의 업(業)에 의해 스스로 모양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업의 모습은 항상 변하고 사라지고 다시 또 생기는 것이니,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나고 잘사는 사람은 좋은 업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못나고 더 못사는 사람 역시 업의 시간 즉, 시절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부러워할 것도 없거니와 업신여길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업에 의한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 자신의 지금 상황은 業이 만든 산물
> 일희일비보다 인과·연기를 마주 보길
> 그리하면 마음 흔들임 줄고 편안해져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인과와 인연, 연기(緣起)와 공(空)한 모습을 잊지 말고 깨어 있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흔들림이 줄어들어 스스로 편안함을 이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니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며 부부는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충격적인 불행을 맞아서도 낙심하지 않고 편안히 살아가는 이 부부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명상]
마음이 불행한 이는
억만금을 주어도 나머지 만금을 얻지 못함에 한탄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이는
억만금을 잃어도 나머지 열 냥이 남아 있음에 기뻐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나와 대상을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 합니다.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되고 자식이 되고 친구가 되고 지인이 되고 이웃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인연의 소치입니다.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을 만나고 하늘·땅·강산·바다 등의 자연을 만나는 것 또한 인연입니다. 소위 나의 육근(六根-눈·귀·코·혀·몸·생각)으로 육경(六境-보이는 것·소리·냄새·맛·느낌·기억)의 대상을 만나는 것 모두 인연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으로 나눠집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연인, 좋은 자식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계절 또한 좋은 계절이 있는가 하면, 태풍이나 해일, 산사태, 폭설, 흉년 등의 힘겨운 자연 현상도 인연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인연 현상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한 치 오차 없이 똑같은 질량(質量)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는 때를 달리하여 번갈아 일어납니다. 좋은 마음이 들 때는 좋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나쁜 마음이 들 때면 나쁜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잘못된 인연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연 현상을 탓하거나 자식 탓, 남편과 아내 탓, 친구 탓, 사회 탓, 나라 탓 등등…. 그러나 자연이나 동물, 모든 사람은 인과에 의한 인연으로 그저 연기하며 생로병사(生老病死), 성주괴공(成住壞空)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시시비비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업이 작용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이라는 감정이 자식으로, 부부로, 이웃과 사회, 국가와 세계, 모든 자연현상에 얽혀질 뿐이니 모든 원인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여 잘못된 착각에 의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두 가지의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은 무엇을 하더라도 무심한 가운데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마음에 걸림이 없어집니다. 그리하면 스스로를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기도와 참선, 보시와 정진을 통해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2026년 동호불교 500평매장 모든 물건 준비되었습니다

불화 탱화 화실 운영 합니다

물품 소진시 마감 됩니다 ※ 택배비도 포함된 가격이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조상옷
- 쟈가드 100벌 이상 270,000원
- 천연펄프 100벌 이상 260,000원
- 추가옵션 (100개이상)
- 버선 300원
- 양말 350원
-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 속옷 세트 100개 이상 130,000원
-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20,000원
-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종이지옷(봉투)
- 지옷 100개 700원 1BOX 70,000원 / 200개 650원 1BOX 130,000원
- 수자 200개 1BOX 130,000원
- 동자선녀 200개 1BOX 150,000원

수입양초
- 밀대 50개 60,000원
- 원백 20개 70,000원
- 돈타래 40개 70,000원

수입홈초
- 원백 20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수입
- 7일초 20개 55,000원
- 5일초 24개 55,000원
- 3일초 40개 55,000원
- 1일초 100개 95,000원
- 15일초 12개 90,000원
- 30일초 4개 130,000원

국산초
- 밀대 50개 60,000원
- 원백 20개 70,000원
- 돈타래 40개 70,000원

국산홈초
- 원백 20개 75,000원
- 등신불 25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최상급 -국산(흰색)
- 7일초 20개 90,000원
- 5일초 24개 95,000원
- 3일초 40개 95,000원
- 파라핀 1BOX(1.8L/12개) 65,000원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혜택 받아가세요'
- 오색종이 400개 140,000원
- 삼베 50개 95,000원
- 삼베옷 (모자포함) 20개 100,000원
- 군웅 50개 95,000원
- 소창 50개 95,000원
- 길배-대 10개 150,000원
- 영가만원등 100개 200,000원
- 오색길배 (천왕길배) 30개 135,000원
- 비석위패 (향나무) 100개 270,000원
- 예수재 50개 80,000원

금은전 쌍 80,000원
위패 수정 가인 해줍니다. 10개 이상 할인 됩니다.

- 수제 부적 50장 15,000원
- 삼베삼제풀이 한박스 400개 240,000원
- 만월등 청도 100개 오색박스 200,000원
- 태양전구 할인 100개 150만원
- 엘지드 전구 국산 100개 140,000원
- 결명 인쇄 부적 100장 6,000원
- 한지삼제풀이 한박스 400개 240,000원
- 반야용선 대10개 180,000원
- 반야용선 소10개 160,000원

보시용품 대량 준비되있음

관용대 탄생불 등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량 구매 시 협상 가격 할인!!

※칠보 개금 할인해 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7치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12000원)※

4월초파일 착한가격(미리준비하세요)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예금주 :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401-1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23 소승과 대승 : 김남주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한줄 요약
김남주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은 서로 기대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시로, 대승의 입장을 잘 드러낸다.

대승, 함께 가는 길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80년대 대학 캠퍼스는 낭만도 있었지만 학생 시위가 끊이지 않는 혼돈의 공간이었다. 대학 건물에는 '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와 같은 구호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특별히 운동권에 가입하지 않아도 데모에 참여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절이었다. 그리고 시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운동가요였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당시 가장 많이 불린 곡이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는 노랫소리가 들리면 학생들의 발길은 어느새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외에도 '아침 이슬'과 '광야에서', '바위처럼' 등 수많은 운동가요가 있었다. 얼마 전 대승불교를 강의하다가 당시 많이 불렸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노래가 문득 떠올랐다. 평소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부처님께서 가신 진리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곤 하는데, 이 곡의 가사와 비슷하다고 느낀 것이다.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대승이란 무엇이며 소승은 꼭 버려야 될 만큼 좋지 않은 가르침일까? 노래의 원작인 김남주의 시를 통해 이를 가늠해 보기로 하자.

김남주는 50년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시인이다. 그는 1972년 유신 헌법이 반포되자 뜻있는 지인들과 함께 지하신문 '함성'을 만들어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으로 시인은 1973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출소 후에도 남민전이라 불리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또다시 체포된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투옥돼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김남주는 그 안에서 시를 쓰며 고난을 극복한다. 이때 쓴 시들을 모아 출간한 시집이 〈진혼가〉를 비롯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이다. 시인의 말에 의하면 다 마시고 난 우유갑에다 주로 시를 썼다 한다. 심지어 낙엽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쓴 적도 있다고 전한다. 이렇게 쓰인 시들은 교도관을 통해 시인의 아내에게 전해졌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시집을 출간할 수 있었다. 옥중에서 쓴 시들 가운데 인상적인 한 편을 소개한다.

"그리고 가실을 끝낸 들에서 / 사랑만이 / 인간의 사랑만이 / 사과 하나 둘로 쪼개 / 나눠 가질 줄 안다."

'사랑•1'이라는 시의 일부다. 사과 하나를 반으로 쪼개면 하트 모양이 되는데, 이에 착안해서 쓴 시라 한다.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시인의 감성은 역시 타고나는 것 같다.

시인은 19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9년여 만에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다. 하지만 1994년 지병인 췌장암으로 이승과 작별한다. 시인이 다니던 전남대학교에 김남주 기념관이 건립돼 그의 원고와 저서들을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이 학교에 다닐 때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 퇴학당했다는 사실이다. 아픈 현대사가 온몸에 담겨 있는 시인이다.

오늘의 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은 김남주가 감옥에서 쓴 작품이다. 당시 국악학과에 다니던 변계원이 이 시에 곡을 붙이고 '전국대학생 노래 한마당'에 참가해서 불렀는데, 뜻밖에 인기를 끌면서 시위 현장에서도 많이 불리게 됐다. 이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비롯해 안치환 등에 의해 여러 버전으로 리메이크 됐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읽어 본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하자 /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 주고 /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주자 / 고개 너머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 서산 낙일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 해 떨어져 어두운 길 /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 주고 /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 주고 /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시련의 길 하얀 길 / 가로질러 들판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 해방의 길 통일의 길 가시밭길 하얀 길 /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김남주, 독재 저항 운동에 투옥
감옥서 쓴 시 시위 곡으로 불려
서로 기대며 함께 가는 모습 그려

때론 혼자서, 때로는 함께

많은 사람들과 등산할 때, 산행에 서툰 이들을 배려한다고 맨 앞에 세우는 경우를 가끔 본다. 베테랑들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산에 오르라는 뜻이다. 좋은 의도가 담긴 행동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산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혼자서 산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배려다. 배려의 본질은 무엇보다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데 있으니 말이다. 불편한 동행보다 편안한 혼자가 나을 때도 있는 법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이 소승이며, 많은 이들과 함께 등산하는 것이 대승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불교의 소승(小乘)과 대승(大乘)이 떠올랐다. 소승은 말 그대로 작은 [小] 배[乘]를 타고 진리의 길을 혼자서 가는 것이다.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깨침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가리킨다.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진리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갈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쪽배가 아니라 아주 큰[大] 배[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승의 시각은 불교의 최종 목표가 중생 구제에 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할 것이다. 불교의 법회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을 끝으로 회향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번뇌를 끊고 공부해서 성불하는 일이다.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불(成佛)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불교를 좋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김남주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은 대승의 입장을 잘 보여 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어깨동무하면서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는 길이니 말이다. 시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승에서는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나중에 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뒤에서 천천히 갈 테니 먼저 가라고도 하지 않는다.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함께하는 길이 대승이다. 혹여 눈앞에 커다란 산이나 바다가 가로막으면 어기여차 넘어 주거나 건네준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주고, 가는 길이 힘들어 쉬어갈 때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기댄다.

이 시를 읽으면서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PSY)가 생각났다. 그리 날씬한 몸매가 아닌데도, 춤출 때 보면 그 어떤 댄스가수보다 날렵하고 힘이 넘친다. 많은 이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싸이가 부른 '예술이야'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너와 나 둘이 / 정신없이 가는 곳 / 정처 없이 가는 곳 / 정해지지 않은 곳 / 거기서 우리 / 서로를 재워 주고 / 서로를 깨워 주고 / 서로를 채워 주고." 노랫말처럼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 지치고 피곤하면 서로를 재워 주고 무명(無明)이라는 잠에 들었을 때는 깨워 주며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는 삶, 이것이 진정 예술이 아닐까 싶다. 김남주의 시와 싸이의 노래, 그리고 대승의 이념이 '서로', '함께'라는 지점에서 묘하게 통하고 있다.

이처럼 함께하는 삶이 좋아서인지 대승에서 때론 이원적으로 접근한다. 소승은 자기만 위하는 방식이므로 나쁘고 대승이 좋은 불교라는 것이다. 물론 소승이라 불리는 부파불교(部派佛教)가 개인적인 깨달음에 치우친 나머지 중생 구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대승불교 운동 역시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단편적으로 소승과 대승을 좋고 나쁘다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소승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대승권 국가보다 사회적인 실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은 폄하의 의미가 담긴 소승이란 표현 대신 남방불교, 혹은 상좌부불교라 부른다.

'혼자는' 나쁘고 '함께'는 좋다는 시선 역시 지양돼야 한다. 누구나 때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함께해서 불편하다면, 혼자 있도록 하는 것이 배려고 지혜다. 반대로 외로울 때면 온기 가득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처럼 '혼자'와 '함께'를 적절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구호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소승을, 함께하고 싶을 때는 대승을."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기 2570(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을사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기남부지사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010-5323-0834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광주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경북지사	010-4152-4376	김선행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강원지사	010-7339-8688	이동격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59호 | 15 | 전면광고

오근(눈, 귀, 코, 혀, 몸)을 제어하여, 그것이 방일해서 오욕(빛,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마치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단속해서, 소로 하여금 날뛰어 남의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포집
- 요사 : 30평, 산 밑
- 매가 : 8억, 차량진입

- 위치 : 서울
- 면적 : 200평, 사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산 밑 차량진입
- 매가 : 25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부지 2013㎡
- 법당 약40평, 요사채 약60평, 창고 약20평
- 산세 및 풍광 좋음
- 주차장 넓음
- 매매 : 6억 2천만원

010-3466-9991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4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 배밭골
- 재개발지, 토굴 10평
- 법당 및 화장실, 올수리
-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일체 양도
- 금액 문의 (성북구청 보증금 5000만원 있음)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당부

010-5371-13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도심 최고 중심사찰부지 안내

지금의 사찰은 도심의 최고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 대구시민 240만 인구의 최고 중심
-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
- 불교5대종단 內 소유 종교용지(나대지)
-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도심속의 명당
- 종교용지 490㎡, 추가 130㎡ 매입가능
- 매매가격 : ㎡당 350만원(협의가능)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 : 6900만원

010-4894-582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있는 주차공간있음
- 토지 140㎡, 건물 146.62㎡ 1층 73.31㎡, 2층 73.31㎡
- 매매 : 2억5천만원

010-9811-48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2억 7000만원(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사찰 앞 50평) 총 710평 그외 사찰에서 사용가능한 땅 500평
- 건물 : 슬라브 3동, 향토방 2동 해우소(화장실) 1동 (선물은 모두 무건물입니다)
- 금액 : 5억원

010-9203-1165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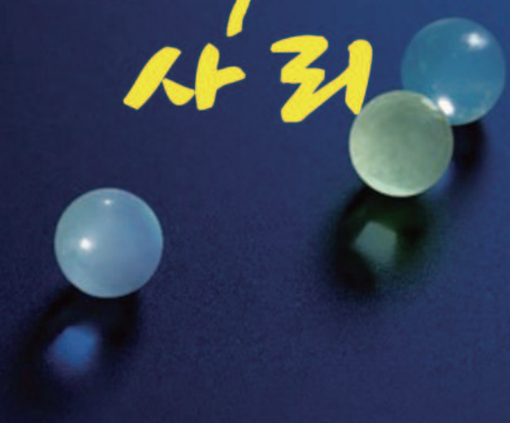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SINCE 2002

NAVER 영옥사리 검색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59호 | 16 | 전면광고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욕심은 괴로움만 줄 뿐, 즐거움을 모르나니 슬기로운 이는 먼저 욕심을 버리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중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지리산 암힐링센터
동업 하실 분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자연치유대체요법
010-4474-8418

손도사성공론 꼭 읽어봐주세요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수강생 모집
명리. 육효
영가 찾는 법
•내 용:기초부터 실전완성(4개월)
•수강료:1개월 무료, 월 15만
•장 소:서울시 관악구 중앙길7 (서울대입구역 6번출구)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㉔ '대장금' (2003)

늘 완전한 사람으로 살 뿐이다

한 해의 끝이 다가오면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며 새해의 각오를 다지기 마련이다. 일 년을 수행에 비유한다면 연말은 그동안 노력의 결과를 맞이할 때이기도 하다.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주 하고 딱 하루가 남으니 마지막 53주 차의 하루는 바로 구경의 부처님 자리라고나 할까.

53이라는 숫자를 보면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한 선재동자 생각이 난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구하는 여정에 나선 뒤 성별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이들 모두를 스승으로 삼아 법문을 듣는다. 마치 53스테이지처럼 펼쳐지는 선재동자의 구법 이야기는 여러 콘텐츠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영웅담이다. 영웅담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인물이 비정상적으로 출생해 시련을 겪다가 누군가에게 구출돼 그를 부모처럼 여기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마침내 고귀한 지위를 되찾는 줄거리를 갖는 이야기를 말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알에서 태어난 왕 이야기는 물론 온갖 성인들의 이야기까지, 영웅담 구조는 매체를 통해 흔히 만나 볼 수 있다.

이런 영웅담 구조를 갖는 많은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바로 '대장금'이다. 〈중종실록〉에 실린 실존 인물 '의녀 장금'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 '대장금'은 2003년 방영 당시 역대 드라마 5위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하며 신드롬을 만들어 냈고, 방영 이후에는 여러 나라에 수출돼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게 된 데에는 역경을 헤쳐 나가며 여인의 몸으로 어의에까지 오르는 영웅담 구조가 큰 몫을 했다.

장금(배우 이영애)의 부모는 내금위 군관과 궁녀 출신이다. 최씨 일가의 음모에 빠져 사약을 받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던 수라간 궁녀 박명이(배우 김혜선)를 궁에서 나와 은거해 살던 서천수(배우 박찬환)가 우연히 구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가 돼 딸을 낳고, 정체를 숨긴 채 오순도순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최씨 일가에게 정체가 탄로 나 화살을 맞은 명이는 "수라간 최고상궁이 되어서 어미의 억울한 사연을 꼭 최고상궁에게만 전수되는 비서(秘書)에 남겨 달라"는 유언을 딸 장금에게 남기고 숨을 거둔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산속을 헤매던 장금을 강덕구(배우 임현식)와 나주댁(배우 금보라)이 거둔다.



사진 출처=MBC 공식 홈페이지

역경 뚫고 어의 오르는 장금 영웅담
능력·지혜 이미 갖춘 완전 모습 그려
'이미 늘 완전한 사람' 자각이 수행

장금이 궁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영웅담 이야기가 펼쳐진다. 생각시 시절부터 눈에 띄었던 장금이 바로 명이의 딸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최씨 일가는 이제는 수라간 최고상궁이 된 최상궁(배우 견미리)의 주도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장금을 궁에서 내보내려 한다.

그럼에도 장금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능과 노력에 더해 한상궁(배우 양미경)의 지원 속에 꿋꿋이 최고상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더욱이 한상궁이 실은 장금의 어머니 명이의 둘도 없는 친구였음을 확인하며 둘 사이는 한껏 애틋해진다.

그러던 중 유황오리 때문에 임금이 탈이 났다는 누명을 쓰고 장금과 한상궁은 제주의 관노비가 되고 제주로 가는 길에 장금의 등에서 한상궁이 숨을 거두며 장금의 위기는 최고조에 이른다.

관노비의 삶을 시작한 제주에서도 영민함을 잃지 않은 장금은 의녀 장덕(배우 김여진)을 만나면서 의술에 눈을 뜨고 의녀 장금이 되어 기어코 다시 궁에 들어감으로써 드라마 '대장금'의 2막이 시작된다. 의녀 장금 앞에도 최씨 일가가 꾸며 놓은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금은 과거 유황오리 사건의 진실을 밝혀 한상궁은 물론 어머니 명이의 억울함마저 풀고 유언을 지킨다.

결국 임금에게 의술을 인정받은 장금은 '대장금'의 칭호를 받으며 어의가 됨으로써 드라마 '대장금'은 고귀한 지위를 되찾는 영웅 이야기를 완성한다.

드라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온갖 고초와 역경을 겪는 장금이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과 지혜를 갖췄다는 사실이다.

생각시 시절의 장금을 처음 가르칠 때 한상궁은 끊임없이 물을 떠 오라고 하면서 음식을 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의 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함을 알려 준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에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장금은 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수라간 상궁으로서의 재질을 갖추고 있던 것이다. 그 유명한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들어 있다"고 하는 장면 역시 타고난 장금의 재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선재동자의 구법여행도 마찬가지다.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만나면서 새롭게 법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가 갖춘 완전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화엄경〉 '입법계품'의 내용이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52번째 선지식인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마지막 53번째에 최초의 선지식인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는 것으로 표현한다. 모든 수행을 마치고 최종 단계로 나아갔더니 최초의 문수보살에게 성불의 인가를 받는 장면, 이것이 그 유명한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다. 처음으로 수행할 마음을 낸 순간이 바로 깨달은 순간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수행은 완성됐다는 뜻이므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진작부터 깨달은 이들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흔히 수행은 부정적인 면을 덜어 내고 긍정적인 면을 새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늘 완전한 사람임을 자각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말이 '장엄'이다. 완벽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면을 더 장식한다는 것이다.

자, 1년 365일 52주 다음의 하루를 지내면 다시 1월 1일이 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마냥 부족한 것 같고 새로운 능력치를 채워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본래부터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불교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완전한 의미를 갖는 완벽한 사람임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성과가 있을 것도 없고 새롭게 시작할 일도 없다. 늘 완벽한 나는 새삼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늘 완전한 사람으로 살 뿐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근기 미성숙한 자에 대승 전하지 말라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㊼ 대승망집 기교불일치의 배척
(大乘妄執 機教不一致의 排斥)

"성문과 독각은 자기의 모든 번뇌를 끊지만, 일체 유정의 번뇌를 즐겨 끊지 않기 때문에 … 또한 불보살의 지혜 바퀴를 따라 보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며, 친구도 없이 혼자서 열반의 성에 들어가 수행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니라. 선남자야, 어떤 중생은 성문승과 독각승의 법에 대해 고생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중생은 아직 근기가 성숙하지 못하고, 하열하며 정진하는 힘이 미약하다. 만일 누가 (그에게) 미묘하고 깊은 대승의 바른 법을 일러 주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모두 큰 죄를 범하고, 또 일체 부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성문과 독각의 법에 대해 부지런히 공부하려 들지 않는 중생은 근기가 성숙하지 못하고 정진하는 힘이 약하므로, 갑자기 미묘하고 깊은 대승의 법을 들으면 실로는 어리석으나 스스로를 총명하다고 생각하여 단견(斷見)에 빠지고, 전도된 생각에 떨어져 무인론(無因論: 인과를 믿지 않음)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인과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내고서, 선악의 업을 부정해 망령되게 대승을 말하면서 나의 법을 무너뜨리고 어지럽힌다. … 이렇게 어리석고 전도돼 남을 배척하는 마음으로 대승의 법은 칭찬하고 옹호하여 널리 퍼지게 하면서 성문과 독각의 법은 헐뜯고 비방·은폐하여 널리 퍼지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성문·독각·무상승을 의지하지 못하고서 속세를 버리고 출가해 구족계를 받아 비구 성품을 이뤘다 해도, 선법(善法)의 인연을 닦아 모으지 못하면, 나의 제자로서 법의 그릇이거나 아니거나 … 이같이 인과를 부정하는 단멸론(斷滅論)자는 사람들 속에 있지마는 실은 악귀이니라. … 그들은 몸을 못 쓰게 되고 반드시 무간지옥에 날 것이다.

이런 단멸론자는 나의 바른 법을 깨뜨리고, 계율을 지키거나 깨뜨리거나 계율이 없는 나의 제자를 핍박, 괴롭히고 편안하게 선업을 닦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인연으로 몇백 천 겁 동안 온갖 나쁜 세계에 빠져 미혹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 이같이 어리석은 이는 사람의 몸도 얻기 어렵거늘, 하물며 성현의 법그릇을 이룰 수 있겠는가? 더욱이 성문·독각이 증득한 열반도 얻을 수 없거늘, 어찌 무상의 정등각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중생의 온갖 과실은 모두 성문승과 독각승의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먼저 대승에 들어가고자 하였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틈이 많은 진흙 병에 기름이나 젖(우유)을 넣어 두면 모두 새 버려서, 병과 기름을 다 잃고 마는 것과 같다. 이같이 중생도 성문·독각의 법에 대해 공부하려 들지도 않고 근기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 정진의 힘이 미약함에도, 누가 만일 그에게 미묘하고 매우 깊은 대승의 법을 말해 주면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큰 죄를 받으며 일체 부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나니, 여러 가지 과실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또 세간의 창고가 무너져 구멍이 났을 때 보물을 넣어 두면 손실이 있는 것처럼 중생도 이승의 법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믿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을 때, 그에게 대승을 말하면 그것을 여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죄를 짓고는 끝없이 나쁜 세계로 돌아다니게 되느니라.

또다시 비유하면, 물이 많이 새는 배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고 큰 바다에 뜰 수 없는 것처럼, 탐욕과 질투가 많은 중생이 이승의 법을 배우지 않고 망령되게 대승이라 자칭하고 단견을 갖고 교만하고 의심하면, 새는 몸(번뇌의 몸)으로서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또 눈이 먼 장님은 갖가지 보배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교만·방탕하여 공견(空見)에 집착하여 이승을 배우지 않으면, 슬기의 눈이 없어 대승의 공덕 보배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몸에 냄새가 나고 더러우면, 비록 훌륭한 향을 발라도 향기롭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승의 법을 부지런히 닦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살생 등의 삿된 견해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위 없는 대승의 법을 배워도 끝내는 매우 깊은 그 법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또다시 비유하면, 돌밭에 좋은 종자를 심고 가꿔도 끝내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도 이승의 법에 대해 부지런히 닦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욕만 탐하여 만족할 줄 모르면, 그 몸에 대승의 종자를 심고 부지런히 정진해도 끝내는 이루지 못하느니라.

또한 옹기에 먼저 독약을 넣었다가 이후 석밀(꿀)을 넣으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승법을 배우지 않고 무인론에 집착하면 그를 위해 대승을 말해도 자타의 이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또 어리석고 미친 사람에게 음악을 연주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같은 중생도 이승의 법을 배우지 못하고 탐·진·치 등의 사나운 번뇌가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무인론과 단멸론으로 근기가 성숙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승을 말해도 그는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오래지 않아 그 몸을 못 쓰게 되고 …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무간지옥에 날 것이니라."

〈송림사 주지〉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24 함께 극락왕생하는 그날까지

▶한줄 요약
조선의 재가 여성 신도들은 불화의 재정적 후원자를 넘어, 불화와 함께 봉안된 복장낭을 손수 제작하며 적극적인 신심과 간절한 염원을 드러냈다.



공덕 수놓은 조선 여인의 신심

조선 후기에 불화와 불상은 예외 없이 출가 남성 수행자인 승려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비구니 스님 가운데 전문적인 화승(畵僧)이나 장인으로 이름을 남긴 분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재가(在家) 여성 신도 중에서도 예배용 불화나 불교적 주제의 그림을 그린 화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같은 시기 중국이나 일본에서 비구니 스님이나 재가 여성이 예술의 주체로 활약했던 모습과 대비된다. 그렇다면 조선의 여성들은 불교미술의 제작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상궁을 비롯한 재가 여성 신도들은 불화의 시주 과정에서 재정적 후원자를 넘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를 찾아냈다. 그 접점이 바로 불화와 함께 봉안된 '복장낭(腹藏囊)'이었다.



복장낭(일월수 다라니주머니) 세부, 조선 19세기 중반, 사직에 자수, 서울공예박물관,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진=서울공예박물관



복장낭(일월수 다라니주머니) 뒷면 묵서, 조선 19세기 중반, 57×25.5㎝, 서울공예박물관,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진=서울공예박물관

바늘과 실로 쌓은 공덕

복장낭은 말 그대로 '복장(腹藏)'을 담은 주머니다. 복장이란 불상이나 불화를 불전에 봉안하기에 앞서 이들을 여법한 예경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신성성을 부여하는 의례를 뜻한다. 오방(五方)을 관장하는 스님들이 수인(手印)을 맺고 진언(眞言)을 외우고 관상(觀想)을 행하며 만든 후령통(喉鈴筒)을 불상 내부에 봉안하는 것이 복장의 핵심 절차다. 불화의 경우 형식에 따라 봉안 방식이 달랐다. 족자형 불화에는 화면 위에 후령통을 담은 주머니를 걸었고, 액자형 불화에는 화면 뒤쪽 공간에 후령통을 안치했다.

복장을 위해 주머니를 사용하는 전통은 늦어도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589년에 조성된 일본 효고현 야쿠센지(藥師寺) 소장 감로도(甘露圖)의 화면 상단 중앙에는 복장낭이 묘사돼 있다. 이는 이미 16세기에는 불화에 복장 의례가 베풀어졌고, 주머니의 형태 역시 후대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조선 후기에는 불전 안에 봉안되는 족자형과 액자형 불화에서 대형 야외의식용 불화인 괘불(掛佛)에 이르기까지 불화의 형식과 관계없이 복장낭이 사용됐다. 이 시기에는 불화뿐 아니라 불보살의 명호(名號)를 적은 휴대용 불교 번(幡)에도 복장낭을 매달았다.

불화에는 대개 화기에 제작자와 조성 사찰, 시주자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된다. 하지만 불화와 함께 봉안된 복장낭에는 시주자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 점에서 소수이지만 시주 기록이 남아 있는 복장낭은 더욱 눈길을 끈다. 흥미롭게도 이들 복장낭의 상당수는 정5품의 궁중여관(宮中女官)인 상궁(尙宮)에 의해 봉헌된 것이었다. 명문에 자신의 신분이나 법명(法名)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청신녀(淸信女)'라고만 적기도 했다. 이는 민간의 재가 여성 신도가 발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신녀'는 범어 우파시카(upāsikā)를 번역한 말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는 재가 여성을 뜻한다. 이름 대신 신앙인의 정체성을 택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 말기 불화와 그에 부속된 복장낭의 명문을 함께 살펴보면, 양자의 시주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불화는 왕실 여성들이 발원하고 복장낭은 상궁이나 궁녀들이 제작해 시주한 사례가 그것이다. 이러한 후원 방식의 분화는 재가 여성들이 각자의 조건과 역량에 맞는 공양물을 선택했음을 보여 준다. 왕실 여성들이 재원을 부담했다면, 상궁이나 궁녀들은 자신이 익힌 바느질과 자수의 기술을 시주로 내놓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수로 만든 불상인 수불(繡佛)은 많은 노동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매우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공양물로 믿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바느질로 만들고 자수로 장엄한 복장낭 역시 특별한 공양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궁녀들이나 평민 출신 재가 여성들은 어릴 적부터 익힌 기술과 여가 시간, 그리고 잘 간직해 둔 재료들을 모아 복장낭을 만들었을 것이다. 불상과 불화를 완성하는 데 복장의례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복장낭을 손수 제작하는 행위는 이들 재가 여성들에게 매우 적극적인 신심의 표현이자, 스스로 공덕을 쌓는 의미 있는 실천이었을 것이다.



극락구품도 세부, 조선 1885년, 흥천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사진=불교문화유산연구소

동갑내기 두 상궁의 염원

서울공예박물관에 소장된 한 쌍의 불화 복장낭은 조선 말기 불교미술의 시주자이자 창조적 주체로서 상궁의 존재를 여실히 보여 준다. 두 개의 복장낭은 전체 구성이 거의 같지만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매듭 장식이 달린 고리 아래에 만개한 연꽃 모양의 덮개가 놓이고, 그 아래로 주머니 몸체와 부채 모양 장식으로 마감된 세 줄의 띠가 늘어진다. 전면의 자수 도상 역시 동일하다. 활짝 핀 연꽃 위에 선 동자(童子)가 두 손으로 연꽃 줄기를 쥐고 있다. 붉은색 저고리와 녹색이나 청색의 하의를 입은 두 동자의 모습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닮아 있다. 연꽃 줄기는 위로 뻗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덮개에 수놓인 만개한 연꽃으로 이어진다.

동자상의 머리 위와 좌우에는 발원문이 세 줄로 나누어 배치돼 있다. "상궁 청신녀 기유생 김씨 허공화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큰 서원으로 빈다(尙宮 淸信女己酉生金氏 虛空華極樂地大願)"는 내용이다. 상궁 류씨 묘진화(柳氏 妙眞華)가 시주한 복장낭의 발원문도 같은 형식이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간 두 동갑내기 상궁은 아마도 평생을 함께한 동무였을 것이다. 상궁의 품계가 입궁 후 30여 년이 지나야 겨우 주어졌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이 복장낭을 만들었을 즈음에는 적어도 40여 세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복장낭에서 흥미로운 점은 상궁 김씨 허공화와 류씨 묘진화가 자신들의 왕생한 모습을 동자의 형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정토계 경전에서는 극락에 왕생한 이들의 형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왕생자의 형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됐다. 머리를 짧게 깎고 붉은 저고리를 입은 동자의 모습은 초록색 당의에 남색 치마를 입은 현실 세계의 상궁과 다르며, 옷을 벗은 어린아이로 묘사된 조선 말기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 속 왕생자와도 다르다.

흥미롭게도 두 동자의 모습은 왕실 원찰인 서울 흥천사(興天寺) 극락보전에 봉안된 극락구품도 속 왕생자와 매우 닮았다. 건명 계유생 홍씨와 청신녀 갑오생 심씨 대비화(沈氏 大悲華)가 함께 발원한 흥천사 극락구품도에는 정확한 조성 연대가 남아 있지 않지만, 같은 법당에 함께 봉안된 신중도(神衆圖)의 화기 내용을 통해 188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흥천사 극락구품도는 궁중회화 속에 등장하는 장수와 복락의 도상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불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복장낭과 흥천사 극락구품도는 자수와 불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로 만들어졌지만, 19세기 중후반을 살았던 재가 신도들이 상상한 극락에 왕생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 준다.

복장낭의 뒷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 복장낭 몸체의 뒷면에는 부모와 형제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한글 발원문이 먹으로 적혀 있다. 조선 사회에서 한문은 공적인 문자이자 남성의 문자였고, 한글은 사적인 문자이자 여성의 문자였다. 이 같은 이중 문자체계는 예술과 물질문화의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화에는 한문만 사용된 반면, 불화, 도자기, 자수 등 전통적 예술 범주에서 벗어난 조형물에서는 한글이 나타난다. 상궁 김씨 허공화와 류씨 묘진화의 복장낭에서는 이러한 이중의 문자 질서가 보다 섬세한 방식으로 표출됐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앞면에는 한문 발원문을 수놓고, 시야에서 가려진 뒷면에는 한글 발원문을 적은 것이다. 이 같은 배치와 문자의 선택은 불교공예품이라는 세부 영역 안에서도 조선의 문자 위계 구조가 적용된 양상을 보여 준다.

작은 주머니, 큰 서원

이 글에서 살펴본 한 쌍의 복장낭은 여성 신도들의 이름과 간절한 염원이 직접 새겨진 물질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언뜻 단편적이고 주변적인 유물로 보이지만, 이 작은 주머니들은 여성이 가문이나 사회가 부여한 이름과 역할을 넘어 스스로 선택한 이름 아래 서원을 실현해 나갔음을 조용히 증명한다. 복장낭은 손바닥만한 크기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여성들이 선택한 신앙의 형식, 그리고 스스로 쌓아 올린 공덕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끝〉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대행 스님

이승저승 양면을 들고 날 수 있다면 생사가 벗어집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여) 스님, 며칠 전에 집을 나와 스님을 친견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껜가는 통도사를 누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도사를 가려고 그러니 길도 모르고 해서요. 통도사 스님을 뵌 적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계사를 어제, 이 지도를 좀 받아서 사찰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그날따라 조계사에 통도사 스님이 어제 처음으로 오셨다 하면서 법문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 갖고요, 통도사 스님을 뵙겠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나온 이유는 공부를 하다 보니깐 가족들에 대한 착이 없어져서요, 저 같은 사람도 또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십몇 년 동안에 절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 세월이 좀 길어지니까요, 선원에서는 한번 5년 전엔가 오니까 주지 스님이 막 나무라시면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러느냐고 그래서 되돌아갔는데 자꾸 몇 년 후면 다시 또 절에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십몇 년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결심이 딱 서면서 집엘 안 들어가고 지금 근 며칠을 사찰을 찾기 위해서 이러는데 굳이 한마음선원에 꼭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섰습니다. 이랬을 때, 스님, 어떤 그거로….

큰스님 그건 주인공을, 못났든 잘났든 당신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건 자유죠. 그런데 들어가서 좋을 일 같으면 들어가시고, 자식들도 있고 그렇다면 들어가는 게,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들어가시면 좋을 건데 왜 그래요?

질문자3(여) 그게 안 됩니다. 스님.

큰스님 왜 안 돼요? 아,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한다면 그건 살면 뭘 합니까? 비중을 봐야죠. 내가 나가서 나만 편안하게 살자고 하느냐, 또는 자식들과 가족이 좀, 나로 인해서 편안하다면 내가 아무리 들어가기 싫어도 내가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나 하고 들어가고,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그 모두가 다 없어질 텐데 왜 그러세요?

당신을 이끌어 가는 거 이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한다면 나를 이렇게 여러 군데로 끌고 다니지 않는 것이 주인공의 도리 아닌가 하고서 거기다 놓고 잡고 들어가서 그냥 산다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그냥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댁이 좋아서, 이렇게 가라 한다 하고 저렇게 가고 싶다 한다고 끄달린다면 안 되죠. 그 말 안 해도 알겠죠? 들떼기요. 마음공부 하는 거는 한군데 앉아서도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몸이 돌아다닌다고 공기 주머니 안에서 어떡할 거예요?

왜, 아까 또 질문한다고 왔던 사람은요? 하하하. 그 못 하면 또 속으로 짠하실 거 아닙니까?





그림 · 최주현

질문자4(남) 스님, 저는 지금 선실에서 비디오 보다가 갑자기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저는 원래 집이 진주고 큰스님 몇 번 뵈옵고 선원 다닌 지 몇 년 됩니다.

아까 누군가 살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를 듣고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 전에 한번 제가 살생에 관해서 생각을 하던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지난 8월 달에 휴가 받아서 진주에 내려갔습니다, 집이 진주니까. 내려가서 진주지원에서 사나흘을 왔다 갔다 다니다가 휴가 끝나는 날 제가 차를 몰고 진주에 장 총무님이라는 분하고 진주 시내로, 진주지원은 시내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이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토끼가 한 마리 도로로 뛰어드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속도를 좀 내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이미 토끼가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늦었구나 싶은 생각에 토끼를 차 바퀴 그 안으로 지나치려고 그냥 그대로 완전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그 안에서 계속 뛰었나 봐요. 순간적으로 오른쪽 바퀴에 토끼가 밟혀서 물컹하는 걸 제가 느끼고 순간 '아, 밟았구나. 죽였구나.' 하는 생각에 핸들에 머리를 박고는 한 5분 정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선원에 다니면서 책 같은 걸 읽어도 '어쩔 수 없이 생물을 죽여도 주인공 네가 한 것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 더 좋은 몸 받아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런 글귀를 몰랐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정신이 너무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5분 동안.

옆에 장 처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차를 다시 돌려서 헤드라이트를 비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토끼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토낀데, 토끼 창자는 이쪽에 있고 껍데기는 저쪽에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깐 저것도 시첸데 치워 줘야 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니깐 그 내장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역겨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장 처사님하고 같이 옆으로 치우고는 제 차 트렁크에 선원에서 나온 접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숲에 덮어두고는, 무덤 대신해 주고 와서 큰스님을 찾아뵙고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다가 제가 순간 느낀 게 뭐냐 하면 왜 나는 선원에 다니며 주인공 공부를 한다면서, 주인공을 굳게 믿으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인공 네가 한 거다 이렇게 믿고 나가라고 큰스님께서 항상 가르치시는데 한참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제가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좋은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어.' 하는 믿음도 바로 나왔겠죠. 그러지 못했던 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아까 그 개구리 얘기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 토끼 생각이 갑자기 나서 질문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었지만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생물을 죽이면 안 되고 생물을 죽이면 천벌을 받는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저의 그런 관념을 조금이라도 깨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원에 여러 해 다녔지만 오늘 질문이 처음입니다, 대법회에서 하는 건. 꼭 하고 싶었습니다. 큰스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그 토끼가 달아나는 걸 잡으러 가서 죽인 게 아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연의 소치죠.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야 우주법계에도 통신이 됩니다

☞ 19면에서 계속

묵묵히 그것을 애처로워했으니깐요. 무슨 주인공이다 이름은 부르지 않았어도 벌써 마음속으로 그렇게 애처로워서 애를 썼으니까요.

그 토끼는 위안을 받고 천도가 되고 그랬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네요. 허허허. 그것이 쫓아가서 죽이지 말라 한 거지 각중에 들이덤벼서 어쩔 수 없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도 내 생명같이 아끼고 내 생명같이 애처로워해 주면 그것이 다 잘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주인공이란 그 이름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댁의 마음이 주인공이니까. 하하하, (대중 스님들 쪽을 보시며)여기서들은 질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대중 웃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허허허, 내 옛날얘기 하나 할까요?

대중 예.

큰스님 옛날얘기 그렇게 좋아요? 하하하. 옛날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이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구박을 하는지 불도 제때에 때 드리지 않고, 먹을 것도 제때에 주지 않고 만날 구박하니까 그냥, 병상에 누워서 꼿꼿이 말라 있거든요. 아들이 가만히, 양쪽을 다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를 연구한 거예요. 아내도 살리고 자기 어머니도 살리고, 이거를 양쪽을 다 살리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온 사흘을 고민을 하고 연구하다가 '옳지!' 그러곤 그냥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찌감치 장엘 갔다 온 거예요, 장에 갈 일도 없는데.

장엘 갔다 와서 자기 부인을 부른 거죠. 불러서 귓속에다 대고 "여보, 남이 들을까 봐 무섭소."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장에 가니까 살이 통통하게 찐 노인네들을 데리고 와서 파는데 소 30마리 값을 모두 받더라 이랬거든요.하하하, 그러고는 귓속에다 대고 누가 들을까 봐 무섭다고 "당신 마음은 어때?" 그러니까 "아유, 해야죠. 30마리 값이면 얼만데, 놓칠 수가 있나." 이러면서 며느리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 이제 씨가 먹히는구나.' 그러고선 빙그레 속으로는 웃으면서 다시 한마디 들어 본 거예요. "자네, 오늘부터 어떻게, 개시를 할 거야?" 그러니까 "해야죠" 하더니만 그냥 간식으로 밤을 삶아서 꿀에다 재어서 드리지 않나, 갖은 노력을 다하고 방이 뜨거운가 찬가 손을 항상 넣어 보고 그냥 이거는 뭐, 말도 못 하거든요, 그냥. 보약을 지어다가 드린다 뭐, 온통 야단을 하니까 금새 깨상해서 나았단 말이야.

나으니까는 어린애를 업고서 나가면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 칭찬하기에 침이 마르지. 며느리는 살찌워서 팔려고, 허허허, 침이 마르게 그냥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신랑은 '아, 다행이다. 어머니가 저렇게 깨상하셔서 다니시니 참 다행이다.' 하고는 속으로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살도 이제 그냥 원만히 찌고 아, 뭐, 얼마나 잘해 드렸는지…. 그래서 며느리가 아주 계획을 세웠죠. 아주 요다음 장에는 꼭, 하하하, 가지고 나가서 팔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 그러던 차에 나라에서 효부라고, 효부문을 세워준다고 난리가 났거든.

> 오직 한 구멍을 기준해서 모든 걸 입력을 한다면
> 현실로 나오는 것이 스스로서 능력 있게 자재할 것이요
> 세세생생에 자유권을 얻을 것입니다.

그냥 뭐, 그냥 효부문을 세우고 나라에서 선물을 모두 갖다 주고 상을 갖다 주고 상장을 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갖다 팔려도 못 팔게 됐네." 하하하,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글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그,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그러다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어리석은 마음에도 내다 팔 수가 없거든. 팔면 탄로가 날 테니까. 그래서 못 팔고 그냥 효부가 됐더래. 하하하.

그러니 그 남편이 오직 한마음으로써 연구를 얼마나 잘했으면 이쪽도 살리고 저쪽도 살리고 양면을 다 살렸겠느냐 이거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일념으로써 오직 '나는 살찌워서 장에 갖다 팔겠다. 팔면 큰돈을 받는다.' 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들어가라 이런 얘깁니다. 하하하.

모든 게 이렇게, 그저 한군데밖엔 없으니깐요.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가 나온 자리로 파고들어야 들고 나는 데에 손색이 없죠. 그래서 저승 이승 양면을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왕래할 수 있다면 생사가 벗어진다. 그걸 아니까 벗어진다. 벗어지게 되면 구경에 이르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모두가 그냥 그 평등하고도 공법에 의해서 용무를 스스로서 걸림 없이 끝 간 데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히 그냥 자유스럽게 사는 거죠. 내가 수만 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수천 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응신이 돼서 그 사람 몸을 빌려서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응하게끔 대신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자유자재권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유자재권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도 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대권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부처님께서 수없이 자기가 걸어온 길과 더불어 배운 길과 깨달은 길, 그 도리를 상세히 일러줬는데도 너무나 그냥…, 요즘 화엄경 풀이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많은 가지를 접해 놨는데 가지가 많으면요, 잎새가 많으면 오히려 뿌리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그 종자의 뿌리가 바로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 길러서 팔아먹으면 돈이 많이 나온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곤 그냥, 그냥 정성을 다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공을 했죠. 그러니깐 나중에는 팔아먹는 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효부문이 나온 거죠, 거기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 데서 거기서 효부문이 나온 거죠. 그러니 팔아먹게 된 거는 싹 없어지고 그렇게 보배가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모르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오직 한 구멍을 기준해서 모든 걸 입력을 한다면 현실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스스로서 능력 있게 자재할 것이요, 또는 세세생생에 자유권을 얻을 것이요, 자기는 모르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큰 보배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내가 어디서 그렇게 옛날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요.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허허허. 그럼…, 아, 내가 꼭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신문사에 신문을 하나씩 구독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건 어느 때고 모자라면 이 선원 속에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구독을 해 주신다면 내가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즉 말하자면 불사하는 데 보시니깐요. 그러니깐 어려운 사람들도 그것을 보시라고 생각하고 하신다면 많이 갖다가 이렇게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하나하나 하는 정성이 아마 더 귀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항상…, 지금 이 스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신행회 법회를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또 나가서 구역 구역이 또 법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역별로다가만 나가서 법회를 스님네들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스님네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거든요. 신행회 법회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말을 듣고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법회를 하더라도 실천을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참 군색하고 일이 생기고 폐단이 집안에 많으면 돌탑 위에도 돌을 하나 올려놓고 절을 하고 가죠? 속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스님네들이, 내 제자인 스님네들이 나갈 때는 나는 항상 거기에 내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내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 속에는 제자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합해서 둘 아니게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섭섭한 마음이 상당히 들 때가 많아요. 왜냐? 모습을 보고 좀 무시하게 되죠. 스님은 작은 스님이니깐 무시하게 되죠, 그죠? 그러는 수가 많죠. 그러지는 않으시더라도 그럴까 봐 내가 그럽니다. 예. 허허허. (대중 웃음)

돌부처에도, 아무 말도 없고 모습도 아무렇게나 우그러진 그 돌부처에다 정성을 지극하게 하는 건 각자의 자기 마음들입니다.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야 우주 법계에도 통신이 돼서 알게 됨으로써 전부 만물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정성은. 그렇게 하는데 당신네들 마음이 만약에 그렇다면 스님들의 마음도 역시 똑같이 그럴 거란 말입니다. 허, 100%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렇다면 벌써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깐 그 모습을 보지 말고 작은 스님으로도 보지 말고 큰스님으로도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100% 아마 공덕을 받을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무척 그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같이 생각하라, 나의 모습같이 생각하라, 내 아픔같이 생각하라, 둘로 보지 말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벌써 스님네가 들어오는 거 보면 '으이그, 으이그'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난 여러분이 말 안 해도요,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하하. 그럴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대놓고 그때그때에 얘기 안 한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 하고 쭉 내려오면서 지켜봤습니다. 지금 여기 스님네들이 내가 뚱딴지같이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 거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행회를 구역별로 나가서 하는데 신행회에 스님네들이 들어갑니다. 둘로 보는 모든 걸 이 시간부터 없애시고 친근하게, 서로가 똑같이. 한 몸뚱이 속에 한 개체로 살아나가는 그 몸뚱이는 바로 이 스님이나 당신들 몸뚱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동생 내 형, 또 내 딸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6년 12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㊷ 아이를 아프게 하는 부모의 태도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화가 날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연(48·가명) 씨는 밝은 표정과 함께 인사를 하며 의자에 앉았다. 깔끔한 옷차림과 적당한 화장, 적절한 눈맞춤으로 편안히 말을 시작했다.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녀는 자기소개를 이어 갔다.

주 호소 문제는 딸과의 불화로 적혀 있어, 이야기를 듣던 중 호소 내용에 맞춰 질문했다.

"딸과의 관계가 어려우신가 봐요?"

처음 본 밝은 표정과는 달리 지연 씨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잠시 침묵하다가 "저만 이런가요? 다른 부모들은 어떤가요?"라고 되물었다.

고등학생인 딸과 대화를 하기만 하면 불같이 화가 났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아이라고 말했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끝 무렵.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위해 문제를 봐야 하니 핸드폰을 열어 달라는 딸의 요구가 못마땅하다고 말했다. 핸드폰을 열어 주면 유튜브를 보거나 노래를 틀어, 결국 딸 방에 들어가 감시하듯 앉아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가 자리만 비우면 '카톡'을 하며 친구랑 시시덕거려요. 다음 주가 시험인데 어쩜 저렇게 제 할 일을 못할까요?"

그 외 문제 행동이라 여기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 눈을 피하고 대답도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상에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게 제 딸이라니 정말…."

지금까지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없었다는 지연 씨는 자신을 둥글둥글하고 모난 곳 없는 성격이라 했다. 딸아이의 게으른 성격이 문제라며 답답하다고 호소를 이어 갔다.

우스갯소리로 '내 아이를 옆집 아이라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는가? 상담실을 찾은 또 다른 내담자에게 들었던 말이다. "내 아이가 아니라 생각하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고 화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독 화를 내는 걸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마음의 대표 기제가 '투사(Projection)',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 '분열(Splitting)', '이상화와 평가절하(Idealization & Devaluation)'다.

'투사'는 내가 원하면 당연히 너도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못한 경우,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이의 공부에 집착한다. 보통 투사는 상대에게 마음을 보냈다가 좌절되면 금방 포기하지만, 자녀에게는 유독 어렵다.

'투사적 동일시'는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특징이 있다. 그 과정은 아주 미묘하게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지연 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녀는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유능함'이라 믿었다. 그 마음에는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한 두려움과 열등감이 숨어 있었다. 어릴 때 뛰어난 오빠들과 비교당하며 성장했던 그녀의 깊은 아픔은 딸이 핸드폰을 보거나 친구와 놀 때마다 울화통처럼 쏟아졌다. 지연 씨는 '저 아이는 게을러', '또 핸드폰 보며 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레이더 감시망을 켜듯 아이의 행동을 포착했다. 그리고 소리치고 다그쳤다. "빨리 공부하라고 했지.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정신 좀 차려."

'투사적 동일시' 부모와 심리적 멀어져
제 길 걷게 하는 '건강한 개별화'가 해법

다그치는 엄마의 표정과 눈빛에 움츠러들며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높은 기대에 아이는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 천천히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검토하고, 못하는 부분을 수정하며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딸 아이는 자신의 성적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엄마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목표가 되기에 거대한 벽을 마주한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포기한다. 그럼 엄마는 역시 내 딸은 글러 먹었다고 믿게 되고 또다시 반복하며 구박하듯 쏘아 댄다. 점점 아이는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게으른 아이'로 행동도 굳어진다.

엄마는 자신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고통을 아이에게 투사하고, 아이가 맞춰진 듯 그런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무의식적인 형태로 조정한다.

투사적 동일시가 많은 관계는 결국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로 마무리된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차단하고 심리적 공간적으로도 멀어진다. 이런 반항조차 어려운 아이는 부모가 심어 준 부정적인 자아상을 그대로 자신이 한심한 인간이라 믿으며 고통 속에 살아간다.

가족 내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해법은 건강한 개별화다. 정서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나의 삶은 나의 것! 너의 삶은 너의 것!"이 돼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안의 감정을 진실하게 느끼고 타인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안정된 자기를 가진 사람이다.

부모의 건강한 개별화는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충동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녀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힘이 된다. 부모가 먼저 자기 자리를 바로 세울 때, 아이는 '엄마의 기대를 대신 살아 주는 존재'가 아닌, 독립된 자아로 성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붓다의 출가는 흔히 비난의 대상이 된다. '가정을 버렸다'는 평가와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외면한 행동으로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전부일까? 개별화를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인의 인식 구조가 만든 편견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붓다의 출가는 버리고 멀어짐이 아니라 깨어남의 길이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가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할 때, 관계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깊어진다. 〈끝〉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건강 365

㊸ 팔꿈치 관절염과 윤활낭염

조기 관리가 회복의 핵심

일상생활에서 팔꿈치 통증을 겪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커피잔을 드는 순간 팔꿈치 바깥쪽이 찌릿하거나 수건을 짜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운동 후 팔을 굽히고 펴기만 해도 뻣뻣함과 통증이 반복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 봤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면 문고리를 돌리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쥐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팔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은 전문적인 진찰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팔을 굽히거나 펴는 동작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반복될 때, 팔꿈치 주변이 붓고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할 때, 손목이나 손가락으로 힘을 줄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 또는 통증이 밤에 악화돼 수면을 방해할 때입니다.

또한 며칠간의 휴식, 냉찜질, 간단한 약물치료로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부 구조물에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45호를 통해 팔꿈치 통증의 원인으로 테니스 엘보우(외측 상과염)와 골프 엘보우(내측 상과염)를 살펴본 바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그외의 팔꿈치 통증의 대표 원인인 팔꿈치 관절염, 팔꿈치 윤활낭염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팔꿈치 관절염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 연골이 마모되면서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지만, 과거 팔꿈치 골절이나 탈구를 경험했던 사람, 반복적인 충격을 받는 운동(야구 투구, 역도 등)을 지속한 사람에서는 더 이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염 환자들은 팔을 완전히 펴거나 굽히는 동작에서 걸리는 느낌, '뚝' 하는 마찰음, 아침에 특히 뻣뻣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흔한 특징입니다.

연골 손상은 한 번 진행되면 자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리치료, 관절 가동범위 회복 운동, 약물치료, 윤활제 주사 등이 도움이 됩니다. 손상이 심한 경우 관절경적 정리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오래된 환자에서는 주변 인대와 신경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반복 통증 밤까지 가면 위험 신호
방치 시 만성화돼 초기 진단 중요
통증 지속 시 전문가 진찰 받아야

2. 팔꿈치 윤활낭염(주관절 점액낭염)

팔꿈치 뒤쪽이 갑자기 부어오르며 만졌을 때 말랑하거나 압통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오래 괴는 습관, 반복적인 충격, 낙상 등의 외상으로 인해 윤활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감염성 윤활낭염일 경우 통증뿐 아니라 열감·발적이 동반되고, 움직이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없는 경우 휴식과 보호대 착용, 약물치료로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와 배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활낭염이 반복되는 사람은 팔꿈치 뒤쪽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일상적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팔꿈치 부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며 팔을 짚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팔꿈치 인대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 관절의 불안정성과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기 쉬워 특히 운동선수에게 자주 보입니다.

팔꿈치를 굽힐 때 새끼손가락과 약지 쪽으로 저릿한 감각이 퍼진다면 팔꿈치 안쪽의 좁은 통로에서 척골신경이 압박을 받는 '척골신경 포착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근력 약화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충격을 받는 선수들에게는 스트레스 골절이나 반복 미세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단순 염좌처럼 보이지만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깊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안에서 작은 연골 조각이 떨어져 움직이면서 걸리는 느낌을 주는 '관절 내 유리체(관절 쥐)'가 생기면 특정 각도에서 팔이 멈추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처음에는 단순 피로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구조적 손상이 진행되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증상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하게 사용량을 조절하며 필요한 경우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기능 회복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팔꿈치 통증은 조기 관리만 잘 이루어지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통증이 일상의 작은 동작까지 불편하게 만든다면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승준
거인병원 대표원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사직야구장 앞
어깨·관절·척추·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 230622-중-155173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수술

전법 일기

꽃이 마음을 치유하다

불교에서 꽃은 수행과 장엄, 찬탄을 상징하며 '만행화(萬行花)'라 불린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오랜 인고(忍苦)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도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꽃에서 배운다. '세계일화 만생일가(世界一花 萬生一家)'란 말처럼 세상은 하나의 꽃이며, 모든 생명은 한 가족이라는 가르침도 담겨 있다.

부처님의 생애에도 꽃의 이야기가 깊게 스며 있다.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일곱 걸음을 내디딜 때는 땅에서 연꽃이 솟아올라 탄생을 축복했다. 또한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드셨을 때, 가섭 존자가 미소로 화답해 모든 법문을 대신했다는 '염화미소'의 일화처럼, 꽃은 불교의 지혜와 마음을 상징적으로 전해 왔다.

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없이 곁에서 위로가 되어 주는 벗과 같다. 또 꽃 한 송이에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바람이 담겨 있다. 그래서 꽃을 활용한 원예치료는 장애인·노인·환우 등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중요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 같은 꽃을 도반 삼아 꽃 문화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고자 원예치료를 하게 됐다. 청각장애인들과의 수업 시간, "우리가 만든 꽃바구니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에게 선물하자"고 말했더니, 그들은 하나같이 남편과 자식들에게 주겠다고 해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 속에서 미워했던 마음의 벽이 이미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했고 마음도 살며시 바뀌는 듯했다. 저마다 가장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기 위해 꽃의 높낮이와 색을 조화롭게 맞추다 보니, 어느새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손끝만 고요하게 움직이며 꽃바구니가 완성되고 있었다. 완성된 꽃바구니를 바라보며 그들은 오늘 작품이 가장 예쁘다며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전송했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얼굴에는 사랑과 미소가 번졌다.

원예치료는 장애인 인식개선에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수업 초반에는 완성한 꽃바구니나 꽃다발 등을 집으로 보내면,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정말 우리 딸이, 우리 엄마가 만든 꽃바구니가 맞느냐"며 확인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 어느새 엄마가, 딸이 전문가 수준이 됐다며 칭찬하는 이들도 많았다. 엄마의 실력을 인정한 딸이 선생님께 드릴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기뻐하던 이의 모습도 눈에 선하다.

이처럼 원예치료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마음 치유의 힘이 있다. 아울러 자신의 손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 성취감과 자부심, 만족감이 작은 꽃바구니 안에 담긴다. 또 마음속 깊이 숨어 있던 작은 희망의 꽃씨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하며 세상도 조금씩 향기로워지는 듯하다. 앞으로도 원예치료가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며, 꽃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송마나의 **시절인연**

12월, 마음의 금식

을사년 한 해가 흘러 12월이 마지막 잎새처럼 금방 떨어질 것 같다. 흘러가는 세월을 어찌 붙잡을 수 있으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해마다 마지막 달력 앞에서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 그래서 후회를 씻어 내고 새해를 알차게 맞이하고자 연말에는 3일 금식을 하곤 한다.

금식 첫날과 둘째 날은 마음이 제법 맑아지고 경건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부터는 허기진 배를 달래며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고대한다. 오후쯤이면 머릿속이 온통 먹을 것으로 가득 찬다. 금식이 끝나면 전복죽을 먹을까, 갓 지은 흰밥에 소고기뭇국을 먹을까?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음식을 탐하지 않았을 것이다. 억지로 절제하는 행위가 오히려 식탐을 부풀린다. 억지 금식은 경건한 수행이 아니라 집착의 또 다른 모양일 뿐이다.

석가는 29세에 출가하여 일식(一食)하며 6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가 되었다. 출가란 어른이 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밖의 세계를 마주하는 일이며,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실상을 향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석가의 일식이란 단순히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다. 석가는 밥맛을 잃어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먹었던 궁전의 산해진미가 정신을 탁하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자각한 후 더는 기름진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금식이나 일식의 참뜻은 억지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저절로 자유로워진 마음의 변화다.

석가는 가슴뼈가 등 뒤에 닿을 만큼 여위어 갔다. 매일매일 몸 안의 번뇌를 비워냈다. 일식은 육체의 절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을 씻는 수행이었다. 석가는 드디어 새벽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마음을 덮었던 무명(無明)이 걷히며 온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었다.

금식을 하며 우두커니 앉아 있다고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가부좌를 틀어 조용히 앉아 있다고 저절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옛날 마조 스님이 부처가 되겠다며 몇 해를 참선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문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고 내다보니 남악 대사가 깨진 기왓장을 돌에 박박 문지르고 있었다.

"스님, 무엇 하려고 기왓장을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려 하네."

마조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기왓장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남악이 대답했다.

"젊은이, 그렇게 앉아만 있어서 부처가 될 것 같은가?"

형식적인 금식이나 좌선은 기왓장을 가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변화다. 올해 연말에는 육체의 금식이 아니라 마음의 금식을 하려 한다.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무명의 어둠을 걷어 내면 부처님의 지혜가 흘러들 것이다.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리라.

〈작가〉

기자칼럼

20년 반복된 개발 논리, 해법은 시민의식

신불산 케이블카 논란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행정이 바뀌고 사업 주체가 달라져도 개발 논리는 새로운 명분을 달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경관 훼손, 생태계 파편화, 안전성 부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지만, 개발을 향한 욕구는 집요하게 되살아났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이 사업은 수차례 중단됐음에도 반복적으로 되살아나는가?"이다. 단순히 개발을 추진하는 힘이 강해서만이 아니다. 이를 견제할 감시 체계와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는 훼손형 개발을 줄이고 보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런 국제적 흐름이 지역 개발 논리 앞에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불산은 영남알프스 생태 축을 이루는 자연 자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도사와 연결된 수행 환경이다. 이 가치를 지키는 일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반복되는 개발 시도 속에서도 "환경·경관·안전성 어느 면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통도사와 불교계가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해 온 이유 역시 수행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다.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개발 시도는 매번 재검토됐고, 자연이 겪은 위험도 사회적 의제로 계속 떠오를 수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노력에 시민의 눈과 관심이 더해져 지속적인 수호 신장의 힘으로 자리 잡는 일이다.

불교의 생명관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일깨운다. 개발 논리가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시민적 감시와 자연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불자들의 지속적 의식이 필요하다.

세계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기준으로 자연과 생태를 우선시하는 시대에, 신불산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

공동체의 관심이 함께 모일 때, 신불산은 비로소 20년간의 개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더 발심하고 깨어 있으라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부처님 재세 시 여성 신도를 대표하는 분이 위사카(Visākhā)다. 이 위사카는 동원정사(東園精舍)라는 사찰을 보시했는데, 이곳에 비구니 스님들이 살고 있었다. 당시 종종 수백여 명의 여성 신도들이 재일(齋日)에 동원정사에서 계를 지키며 스님들과 함께 수행했다. 오후 늦게 위사카가 그녀들에게 "이곳에서 어떤 소원을 갖고 계를 지키며 기도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나이 많은 여인은 죽은 뒤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고, 중년 여인은 자기 남편이 첩을 들이지 않기를 원했으며, 막 결혼한 여인은 첫아들을 낳기를, 처녀들은 백마 탄 왕자를 만나기를 소원했다. 위사카는 여인들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위사카가 부처님께 여인들의 소원을 이야기하자, 부처님께서 다 경청한 뒤에 말씀하셨다.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은 중생 세계의 당연한 이치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노쇠하며 병들어 죽어 간다.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거늘, 어찌해서 그대들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생사윤회의 밧줄로 자신들을 꽁꽁 묶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뒤에 부처님께서 다음 게송을 말씀하셨다. "소 치는 목동이 채찍으로 소를 몰아 목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늙음과 죽음'

행복·평안함에만 머물러선 안 돼
고(苦) 벗어나 진정한 행복 구해야
바른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길

이 목숨을 순식간에 (저세상으로) 몰고 간다.(〈법구경〉 #135)"

독자님들은 부처님께서 여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는가? 필자는 근자에 사찰 불교대학에서 불자들을 만나다 보니, 부처님께서 여성 불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삶은 순식간에 지나감이요, 무상하거늘 고작 현 삶의 안일함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사찰 불교대학에서 강의하는 도중에 종종 "왜 여러 종교 가운데 불교를 믿게 됐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 여러 답변들이 나온다. 답변 중 가장 많은 것이 '행복하기 위해', '편안함을 위해'라는 것이다. 그러면 또 묻는다. "불교를 믿고 행복합니까? 혹 편안한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대체로 아직 찾지 못했다고 답한다. 그럼 언제쯤 행복을 느끼고, 언제쯤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까?

언제부턴가 불교의 획일화된 명제가 '현재의 안일 추구'로 되어 버렸다. 왠지 불교라는 종교의 색깔이 희석된 느낌이다. 수십여 년 전, 여성들의 권익이 낮고 문맹인이 많았던 시대에는 사찰에 와서 절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훌륭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편안함을 위해 불교를 믿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생사라는 번뇌의 고(苦)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離苦得樂]을 추구해야 한다. 여성 불자들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즉 경전을 공부해 진리의 맛[味]도 보고 명상도 하며 기도를 통해 삼매도 느껴봐야 한다. 더불어 봉사를 통해 이타(利他)의 기쁨도 경험해야 한다.

여성 불자들이여! 지금까지도 훌륭했다. 하지만 더 발심하자. 깨어 있어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 하신 말씀을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불자들이여!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장애인 포교, 마음이 길을 바꾼다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25년이 이제 이 주일 남짓 남았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2026년의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특히 장애인들과 일상을 함께하다 보니, 그들에게 다가오는 삶을 어떻게 살펴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속에 작은 빛 하나라도 지펴야 할 때다. 밝은 마음은 번져 나가고, 번진 마음은 또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 놓는다.

흔히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들 한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삶의 무늬를 바꿔 놓는다는 말이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마음가짐만 고쳐도 인생 전체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인생을 바꾸는 힘은 바깥 조건보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오래전 우리 선지식들의 일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원효 대사는 당나라로 향하던 길, 어느 무덤가에서 밤을 지내며 갈증이 나 바가지의 물을 마셨다. 그토록 달고 시원하던 물이 아침에 보니 해골에 고인 물이었다. 놀람과 구역질 속에서 문득 깨달음이 일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남겼다.

불편과 고통 외면 않는 마음
장애인 포교와 신행 길 넓혀
따뜻한 새해 위해 마음바꿈 要

이 깨달음은 오늘 우리 사회, 특히 장애인의 신행과 불교복지의 길에서 더욱 깊게 다가온다. 누군가에게는 절 마당의 작은 턱 하나, 법당 문턱의 손잡이 하나가 그저 '조금 불편한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법당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높은 벽이 된다. 그러나 그 벽 역시 세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 벽을 낮출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의 마음먹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신행의 길을 바꾸고 장애인 포교의 방향을 열어 준다.

불교의 자비는 그저 마음속에 머무는 정서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에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 경사로 하나, 점자 안내 하나, 이동식 법당 의자 하나, 수어와 자막을 갖춘 법문 하나,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자비행이다.

몸이 불편한 이들이 누구보다 편안하게 부처님 전에 앉아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일, 바로 거기서 마음의 자비가 현실의 길을 고쳐 만드는 순간이 열린다.

행복도, 깨달음도, 신행의 문턱도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같은 어려움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불자장애인 전체의 포교와 신행의 길은 더 넓어지게 된다.

이 주일 정도 남은 올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마음이 달라지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 길 위에서 2026년은 분명 조금 더 따뜻한 해가 될 것이다.

社 說

사찰 산불 방재, 더 미룰 수 없다

올해 3월, 우리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했다. 9개월여가 지난 지금, '자연복원'을 선택한 고운사 사찰림에는 새 생명이 움트고 야생동물이 발견되는 등 뚜렷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찰 방재 체계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계종 문화부가 개최한 '문화유산 보유사찰 재난 대응시설 마련 전문가 좌담회'는 그 위기 수준을 명확히 드러냈다. 조사 대상 98개 전통사찰 가운데 65%가 산불위험도 '높음' 이상, 그중 19곳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기후위기 시대 전통사찰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 주는 단적인 지표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산중에 자리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은 산불 발생 시 치명적 약점이 된다. 지형적 특성으로 소방 인력 접근이 어렵고, 주변 숲이 거대한 연료로 변화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키운 대형 산불의 일상화
불교계·정부 함께 보존 대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현행 방재 시설로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옥외소화전이나 소화기, 방수총 같은 기존 설비는 초기 화재나 단일 전각의 불길을 끄는 데는 활용할 수 있으나, 여러 발화 지점이 동시에 발생하는 '광역 산불'에는 사실상 무력하다. 김동현 전주대 교수는 "현재의 설비 규모로는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기조차 어렵다"며 실제 피해 분석을 바탕으로 "최소 30배 이상의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운사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확인해 준다. 산불은 발생 이틀 뒤 사찰에 도달했고, 사찰은 나름의 대응을 시도했음에도 불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교수는 "수막 소화시설 타워 14기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전소는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특정 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사찰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재난 유형이다. 기존 경험치를 넘어서는 산불의 규모와 속도를 고려한 방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사찰을 지키는 일은 불교계만의 과제가 아니다. 사찰과 사찰림은 건축·조형·경관·생태가 결합된 복합문화유산으로 국가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 사찰림 관리는 국가유산청과 산림청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 사찰림을 '국가문화유산 단위'로 인식하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방재 설비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페인 발렌시아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설치한 아쿠아돔처럼, 수막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인데도 사찰의 재정 형편에 따라 방재 능력이 천차만별인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자연 재난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체계적 준비는 분명 가능하다. 불교계 각 종단과 정부, 지자체가 협력해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불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2월 17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2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2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공덕암
• 주 지 : 승현 스님 (속명:오정식)
• 주 소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자태실로 294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